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1

박영민 외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01) 서정 갈래

산속에서_나희덕

문제 확인

본책 010~011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④ 05 어둠, 밤

01 1연의 '불빛의 따뜻함'은 시각적 심상을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 시킴으로써, 산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주는 '불빛'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시적 화자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에 시선을 두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시련을 겪는 시간으로 '어둠'과 '밤'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적 화자는 어두운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고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을 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1연과 3연에서 일반적인 문장 배열에 변화를 주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강조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심상

실제로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 표현에서 직접 보고 겪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분위기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극하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심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02 이 시는 1연의 첫 행과 3연의 첫 행에서 '..... 사람은 -리라'와 같은 구조의 문장과 어미 '-리라'를 반복하고, 2연의 마지막 행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얼마나 -나지'와 같은 구조의 문장과 어미 '-나지'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풀이 |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운율을 음수율(ㄷ), 끊어 읽는 말의 덩이의 규칙적인 반복에서 느껴지는 운율을 음보율(ㄹ)이라고 한다. 이 시에서는 이러한 음수율과 음보율이 쓰이지 않았다.

03 ㉠에서 어깨를 감싸 주는 행위의 주체는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은 산속에서 '불빛'을 내뿜는 집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월적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시적 화자는 4연에서 '먼 곳의 불빛'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그네'에게 당장의 안식을 주지는 못하지만, '나그네'가 절망하지 않고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힘을 준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는 우리가 '불빛'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불빛(㉠)'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따뜻함'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로, 희망과 위안, 위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인 시어는 산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어둠'과 '밤'으로,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꼭 짚어 봐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2~01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희망 10 ③ 11 ①

01 서정 갈래는 개인의 정서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양식이다. 또한 서정 갈래는 시적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가공하여 표현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에 가깝다.

02 이 시는 1연의 첫 행과 3연의 첫 행에서 '..... 사람은 -리라'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2연의 마지막 행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얼마나 -나지'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는 시적 화자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청각적 심상이란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의 심상을 말한다. 이 시에는 '빛'과 '어둠'과 같은 시각적 심상이나 '불빛의 따뜻함'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거대한 산줄기’와 같은 자연물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작은 지붕들이’ 건네는 위로와 위안의 크기와 비교하기 위한 대 상일 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에서 1연과 3연의 첫 행에서 ‘…… 모르리라’, ‘…… 알리 라’라고 표현한 것은,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를 되새기듯이 읊조 리는 것일 뿐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시적 화자는 ‘먼 곳의 불빛’이 ‘나그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 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 기를 바라고 있을 뿐, 자신을 ‘나그네’와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04 이 시에서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 위안을 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반면에 ‘어둠, 밤’은 시련과 고통,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

05 [A]와 [B]에는 모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A]에서는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라는 문장의 어순을, [B]에서는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 어깨를 감싸 주는지 알리라’라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각각 ‘불빛의 따뜻함’과 ‘위로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반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중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 참고 자료

시의 다양한 표현 방법

도치법	말의 차례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대구법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방법
설의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
반어법	실제의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역설법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

06 어깨를 감싸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안하기 위 한 행동이다. 즉, ㉠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 아니라 ‘작 은 지붕들이’ 산속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 주는 커다란 위 로와 위안의 힘을 뜻한다.

07 ‘불빛의 따뜻함’에는 시각(불빛)을 촉각(따뜻함)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 내의 어둠,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08 이 시는 깊은 밤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처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 곳의 불빛’처럼 작은 위로나 위안 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 등에게 추천해 주 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을 즐기려 는 사람은 어떤 시련을 겪고 있거나 시련을 겪는 사람을 위로 해 주려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를 추천해 주기에 적절하지 않다.

09 이 시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불빛을 발견한 시적 화 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 개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어두운 산속에서 ‘먼 곳의 불빛’을 보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달 음을 전하고 있다.

10 이 시에서는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와 같이 후각적 심상을 활용 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시각의 촉각화(공감각적 심 상)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연필로 쓰기’,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보듬어 주는 삶의 가치를 강조 하고 있다.

② ‘연필로 (시) 쓰기’를 ‘인생’에 비유하여,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살고 싶다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줄글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한 산문시이다.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마치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듯 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1 이 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줄글 형식으로 구성되어 형태 상으로는 서정 갈래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시구 를 반복하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 하고 있으며(ㄱ), ‘연필로 (시) 쓰기’를 ‘인생’에 비유하여(ㄴ)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시적 화 자의 바람을 함축적으로 표현(ㄷ)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 갈래 로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외형률과 내재율

- 외형률: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글자 수나 음절을 반복하여 형성된다. 주로 정형시에 나타난다.
- 내재율: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들어 있는 운율로, 시 의 언어적 요소나 내용과 표현 등의 느낌을 통해 형성된다. 주로 자유시나 산문시에 나타난다.

01 ② 02 공감각적 심상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03 ⑤ 04 ② 05 나그네 06 ③ 07 ④ 08 ③

01 1연에서는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을 발견한 시적 화자의 경험이, 3연에서는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보았던 시적 화자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 2연에서는 인간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4연에서는 희망이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02 '불빛의 따뜻함(㉠)'에는 시각(불빛)을 촉각(따뜻함)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얻는 희망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드러난 심상의 종류와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먼 곳의 불빛(㉡)'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어두운 산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는 존재이다. 즉,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04 일부 서정 갈래의 작품에서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시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없다.

➤ 참고 자료

서정 갈래의 형상화 방법

- 작품 속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이 시적 화자를 내세워 시의 내용을 전달함.
- 비유, 상징, 반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나 느낌, 관념 등을 함축적으로 전달함.
- 비슷한 소리나 구절, 일정한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거나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등 여러 가지 심상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드러냄.

05 '나그네'는 사전적으로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 시에서는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즉 시련을 겪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

06 (가)에는 시각적 심상(불빛, 어둠 등)과 공감각적 심상(불빛의 따뜻함)이 나타나 있고, (나)에는 후각적 심상(향기로운 영혼의 냄새)이 나타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시적 화자는 우리가 '불빛'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잘못된 것을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연필로 쓰기'처럼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포용하며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② (가)는 종결 어미 '-리라, -니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종결 어미 '-버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에서 시적 화자는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나그네'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함의하는 시적 대상일 뿐, 시적 화자는 아니다. (나)의 시적 화자는 '나'로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⑤ (가)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따뜻한 힘'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연필로 (시) 쓰기'를 '인생'에 비유하여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참고 자료

「연필로 쓰기」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사색적, 성찰적
소재	연필로 쓰기
주제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은 마음
특징	•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 후각적 심상이 드러남.

07 '반편'의 사전적 의미는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시적 화자가 자신을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이라고 말한 것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② '막무가내의 어둠'은 짙은 어둠을 표현한 시구로, 달리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시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은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로서 의미를 지닌다.

③ 시적 화자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연필의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온전치 못한 삶을 바로잡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용서와 관용이라는 삶의 가치가 지닌 의미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08 ㉔는 시련이나 곤경의 시간인 반면에 ㉕는 시적 화자가 차분하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해 주는 시간이다.

02 서사갈래

관내 분실_김초엽

본책 018~031쪽

문제 확인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퍼낸 책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6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17 ④ 18 ⑤
19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20 ② 21 ③

01 (다)에서 서술자는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고 하였다. 즉 마인드 도서관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의 "엄마가 실종되었다. ……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다)의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라는 부분을 통해 도서관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2 (다)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인드 업로딩을 영혼을 데이터로 이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 마인드는 단순히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낸 것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인드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②, ④ (다)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학계에서 마인드를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낸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였다. 즉, 이식된 데이터인 마인드에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⑤ 이 글에서 '마인드'는 고인과 관련하여 일생 동안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기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03 이 글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특정 인물(주인공 '지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서술자가 '지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지민'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④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중심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 서술하고 있다.

⑤ 관찰자인 '나'가 작중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관찰하여 제시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참고 자료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보조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04 (라)에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의 마인드를 일찍 찾아보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동생인 '유민'을 원망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사)에서 '지민'이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라고 말한 것에서 원망하는 대상은 '엄마'이다.

| 오답풀이 | ① (마)에서 임신 초기의 주의 사항을 재차 강조한 안내 메시지를 읽는 '지민'의 모습과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라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자는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바)에서 서술자가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라고 한 것에서 '지민'이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라)를 통해 3년 전에 '지민'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러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바)를 통해 '지민'은 엄마의 집착과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면서 반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다.

06 (차)에서 '유민'이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민'은 엄마의 행방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엄마의 마인드 분실에 대해 당혹스러워한 사람은 '지민'이다.

| 오답풀이 | ① (아)의 "송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아)의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 하는 것처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의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의 "엄마의 표정을 마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아)~(자)를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엄마가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지민'은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여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 이로 볼 때 (아)~(차)에 나타난 주된 갈등 양상은 엄마와 '지민' 사이의 외적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심리가 대립하면서 생기는 갈등임.
외적 갈등	등장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에 의해 생기는 갈등으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등이 있음.

08 (아), (자)까지는 '지민'이 엄마에게 모진 말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이어지다가, ㉠을 계기로 '지민'과 '유민'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은 엄마와의 일을 회상하던 '지민'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한다.

09 (타)에서 '지민'이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라고 질문한 것에 아빠가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라고 말한 것에서, 엄마가 '지민'을 낳기 전까지는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은 '지민'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유미한 흔적을 찾던 중에 발견한 책에 적혀 있던 엄마의 이름이다. 즉,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단서(a)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지민'은 엄마가 자신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d).

| 오답풀이 | b. (타)에서 아빠는 엄마가 과거에 했던 일을 알려 주고만 있을 뿐, '지민'과 아빠의 관계가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c. ㉠을 통해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출산 후 '지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11 '인덱스(㉠)'는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를 가리킨다. 즉,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을 가리킨다.

12 ㉠은 엄마가 '지민'을 낳기 전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던 시절의 삶을 가리킨다.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다는 것에서, 엄마는 '지민'을 낳은 후 점차 무기력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무기력함을 극복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13 (너)에서 '현욱'은 엄마가 표지를 디자인한 책을 '지민'에게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욱'이 죽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② (하)에서 '현욱'은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③ (하)에서 '현욱'은 출판사가 사양 산업이 되어 저물어 가던 시기에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하듯 말한다.

④ (너)에서 '현욱'은 '지민'에게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로 보아 '현욱'은 아내가 표지를 디자인한 책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너)에서 '현욱'은 죽어서까지 아내가 자신을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14 '지민'은 아빠가 엄마의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킨 채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 것을 원망하듯 말한다(a). 이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라는 서술을 통해 ㉠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b)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15 (타)에서 서술자는 세상에서 잊히기 전 자기 자신으로 살았을 엄마의 모습을 열거하는 한편, 출산 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고립된 엄마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 '지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꼭 고단원 평가 문제

-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관내 분실 06 ① 07 ⑤
08 ③ 09 인덱스 10 (1) 아내의 인덱스를 지워 버렸기 때문이
다. (2)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⑤

16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엄마의 마인드를 꼭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 '지민'이 엄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으로,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으려는 이유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7 '지민'은 스캐닝 결과에도 실망하지 않고 끈기있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스캐닝 결과에 의문을 품거나 주변의 침묵에 어색함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8 '이곳'은 '지민'이 마인드에 접속했을 때 '지민'의 눈앞에 펼쳐진 가상의 공간으로,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은하'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작은 서재이다. 즉, '이곳'은 '은하'만의 공간이므로,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9 '지민'의 시선을 피하던 엄마는 '지민'의 말에 '지민'의 진심을 느끼고는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후 '지민'이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에, '엄마'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는다. 이처럼 엄마가 '지민'의 손을 잡는 행동은, 엄마와 '지민'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였음을 의미한다.

20 (서)에서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민'이 엄마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싶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③ (어)에서 엄마가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이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엄마는 이런 '지민'의 손을 잡는 장면은 두 인물의 마음이 통했음을 보여 준다.

④ '은하'는 처음에 '지민'을 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린다. 그러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지민'을 느끼고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지민'의 진심을 느낀 '은하'가 '지민'의 말을 들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⑤ '지민'은 과학 기술인 마인드 접속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엄마와 만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 과학 기술을 이용해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21 이 글은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미래를 배경으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지민'이 엄마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와 화해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그려 내고 있다.

01 이 글은 소설로,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서사 갈래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에 따라 서술하여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갈등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더하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작가 자신이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교술 갈래이다.

참고 자료

소설의 특성

허구적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냄.
산문적	서술과 대화에 의한 산문 형식을 갖춘.
서사적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요소로 하여,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
예술적	언어를 통하여 예술성을 드러냄.

02 (다)에서 '지민'이 집에 오는 길에 검색해 보았지만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과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인드가 실종되는 일이 도서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⑤ (가)와 (다)를 통해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사후에 도서관에 마인드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민'은 3년 동안 엄마의 마인드가 기록되어 있는 도서관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가, 처음 도서관에 찾아갔을 때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꿈볼 수 있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지민'이 생전에도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에서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져 버릴 것을 예측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에서 '도서관'은 고인을 만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추모 공원 역시 소설 속 '도서관'과 같은 추모의 공간이므로, '도서관'이 추모 공원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은 엄마의 실종이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매우 평범하지 않은 사건임을 알려 준다(b). 독자는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d).

05 ㉠은 엄마의 마인드가 '관내 분실'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관내 분실'은 도서관 내에 마인드가 존재하지만 검색이 되지 않아서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06 ㉠가 포함된 문장은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러 간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인 '준호'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자초지종(自初至終)'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 동문서답(東問西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 자문자답(自問自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함.

㉣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07 (마)를 통해 엄마가 '지민'에게 집착하며 '지민'을 통제하려 하였고 '지민'이 이에 반발하면서 서로 멀어지다가,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면서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 '지민'은 엄마의 병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인지,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엄마의 병이 더 심해진 것이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 '지민'과 엄마가 갈등하다가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게 된 것인지, 서로가 서로를 포기해서 갈등하게 된 것은 아니다.

㉢ '지민'이 엄마가 무너진 계기를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느낀 것인지,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한 것은 아니다.

㉣ '지민'과 엄마가 갈등한 것은 엄마가 죽기 전의 일이다.

08 이 글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도 특정 인물인 '지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지민'의 내면과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지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9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으면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의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표지를 디자인한, 엄마의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하고는 '인덱스'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인덱스'이다.

10 (가)에서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엄마의 인덱스를 지워서 다시는 아내('지민'의 엄마)를 만날 수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라)에서 '현욱'이 한 말을 고려할 때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시 만나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내의 인덱스를 지웠다는 내용을 썼다.	☐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11 (마)에서 '지민'은 자신을 낳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았을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도 임신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은 이제야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지민'은 세상에서 잊히기 전의 엄마의 모습을 '세계 한 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깊은 씨.'로 표현하고 있다.

13 서술자가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세상에서 잊히기 전 엄마의 삶과 현재까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 온 '지민'의 삶을 동일시함으로써, '지민'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를 엄마의 마인드를 연상해 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이 글은 대체로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참고 자료

문제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문장들의 독특한 표현적 특징을 말한다. 독자는 문제를 통해 작가의 개성을 느낄 수 있고,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는다.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서술, 묘사, 대화가 있다.

- 서술: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
- 묘사: 어떤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 보여 주는 방식
- 대화: 인물들이 주고받거나 혼자 하는 말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 작중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보여 주는 방식

- 15 마인드 접속기로 엄마와 재회한 '지민'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마인드 접속기'는 '지민'과 엄마가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재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글의 재료로, 특정 대상이나 환경,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등이 모두 소재가 될 수 있다. 소재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소한다. •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작품의 주제를 상징한다.
-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 시대상을 드러낸다.

- 16 ㉠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본 것은, 엄마의 마인드가 자아와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생전 정보를 바탕으로 재현해 낸 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7 이 글은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미래를 배경으로, 돌아가신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지민'이 엄마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38~039쪽

01 ④ 02 ③ 03 엄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지민'의 심리를 알 수 있다. 04 ⑤ 05 ③

- 01 이 글에서 '도서관'은 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고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민'은 도서관의 마인드 접속기를 이용하여 이미 돌아가신 엄마와 재회하고 화해를 한다는 점에서 ④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배경

등장인물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한다. 배경은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를 암시하기도 한다.

- 02 [B]에는 '지민'이 마인드에 접속한 이후의 과정이나 '지민'의 심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지민'의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③은 '지민'이 인덱스를 발견하고 자신을 낳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서 살았던 '엄마'를 상상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민'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지민'은 화면에 뜬 엄마의 이름을 발견하고,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엄마를 만난다. ㉠은 엄마를 만나기 직전에 느끼는 '지민'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엄마를 만날 생각에 '지민'이 긴장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4 시선을 피하던 '은하'가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유는 진심을 전하려는 '지민'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5 <보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인공인 '지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이 작품은 '지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는 있지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지민'을 비롯한 사건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3 극 갈래

결혼 _이강백

본책 042~053쪽

문제로 확인

01 ② 02 넥타이 03 ⑤ 04 ④ 05 덤 06 ④ 07 ⑤
08 ④ 09 ② 10 시간의 경과(흐름)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16 ① 17 '여자'에게 헌신적 사랑을 약속하는 '남자'의 말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8 진실한 마음

- 01 독백은 대사 중 무대에서 등장인물이 혼자 하는 말로,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 '남자'의 대사는 관객에게만 들리는 말로 방백에 해당하며, '남자'의 내적 갈등도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③ 이 글은 특별한 무대 장치나 효과 없이 등장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나)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고 넥타이를 빌리면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⑤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와 같은 지시문을 통해 대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인물의 심리나 표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참고 자료

희곡의 요소

형식적 요소		인물, 사건, 배경
내용적 요소	해설	막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
	대사	• 대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 독백: 상대 배우 없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말 • 방백: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
	지시문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조명 등을 지시한 부분

02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긴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며 넥타이를 빌리고 있다. 이처럼 '넥타이'는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03 ㉠은 '남자'가 아무리 사정해도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하인'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04 (라)에서 '여자'가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 버린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다)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라고 칭찬한 것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여자'가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이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가 자신을 낳고 홀로 키운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여자'가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여자'는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고,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여자'는 '남자'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은 '덤'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난다. 작가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참고 자료

'덤'의 의미

덤	'여자'의 어릴 적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드러냄.
---	--------------------------------------

↓

작가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06 ㉠은 '여자'가 화제를 전환하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첫마디를 건넨 것이다. 따라서 연출자가 밝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희열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A]에서 '남자'가 "그런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라고 말한 것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자신을 믿고 있는 '여자'를 속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건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남자'는 나무와 고양이를 예로 들어 소유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진실, 즉 소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09 '사진 석 장'은 '남자'가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라고 '여자'에게 묻자 '여자'가 제시한 물건이다.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 '여자'가 '미모'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자료

사진 놀이의 의미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	• 시간이 경과하면 젊음과 아름다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여자'가 인식하게 함. • '여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함.
-------------------------------	---	---

10 '여자'는 "(조금 쉰 목소리로) 마흔다섯이에요.", "(푹 쉰 목소리로) 일흔 살이 넘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중년 부인의 목소리와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있다. 즉, '여자'가 목소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달라진 나이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흐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1 ㉠은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남자’의 칭찬에 대한 ‘여자’의 대답으로, 어머니나 할머니보다 자신이 더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는 ‘남자’의 칭찬에 ‘여자’가 겸손하게 대답한 것이지, 자신의 미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2 ‘남자’가 ‘하인’에게 건네받은 봉투를 ‘여자’에게 보여 주면서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여자’를 계속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려고 ‘남자’ 스스로 ‘여자’에게 건넨 것일 뿐, ‘하인’이 직접 ‘남자’의 정체를 폭로한 것은 아니다. 또한 봉투에는 “나가라!”라는 말만 써 있을 뿐,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 ‘하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계적인 태도로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회수해 간다. 이처럼 ‘하인’은 작품의 전개를 돕고 작품 속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보조적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인’은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빼앗으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하인’은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자’와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작품에 희극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 (타)에서 ‘하인’은 엄청나게 큰 쿠두 한 짝을 가져와 자기 발에 신 으면서, 그 구두발로 ‘남자’를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남자’가 빌려 간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남자’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폭력까지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하인’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남자’가 빌려 간 물건들을 하나 씩 빼앗아 온다. 이는 소유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주게 된다는 진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행동으로, ‘남자’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상기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 13 ‘여자’는 이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절대로 사기꾼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와의 맹세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은 ‘남자’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와의 맹세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자’의 심적 갈등이 나타난 것일 뿐,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 14 ‘경고문(㉢)’은 저택의 주인이 ‘남자’에게 보낸 쪽지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남자’는 이

쪽지를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자’에게 그 경고문을 직접 보여 주면서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고백한다. 이로 볼 때 “나가라!”라고 쓰인 ‘경고문’은 ‘남자’가 ‘여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여자’에게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하인’은 ‘남자’를 저택에서 쫓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신 으면서 ‘남자’를 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동안은 ‘하인’이 ‘남자’에게 빌려 준 물건을 빼앗아 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하인’이 ‘남자’에게 폭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은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큰 구두 한 짝’의 역할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신음.



구두발로 ‘남자’를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의 긴장감을 높임.

- 16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어머니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남자’와 헤어지려고 하였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남자’를 사랑하고 있기에 매몰차게 나가지 못하고 ‘남자’의 부름에 멈추어 선 것이다. 즉, ㉠에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와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17 ‘남자’는 ‘넥타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빌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다가 되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여자’를 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자’를 세상에서 빌리는 동안에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다가 되돌려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넥타이’는 ‘여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남자’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18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 물건을 빌려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며, ‘여자’는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조건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자’는 빈털터리인 자신의 정체를 ‘여자’에게 고백하고, ‘여자’는 ‘남자’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여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01 ④ 02 하인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나무, 고
양이 08 ④ 09 '여자'에게 창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남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반면, '여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하고 있다. 10 ①
11 세상의 모든 소유는 '덤'으로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빌린
것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⑤ 19 ㉠: 소유, ㉡: 사랑 20 ①

01 이 글은 '남자'와 '여자'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
되며(ㄴ), '(입을 다물어 버린다), (대답이 없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와 같은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표
정이나 동작 등을 알려 주고 있다(ㄷ).

▶ 오답풀이 ▶ ㄱ. 극 갈래 작품들은 대체로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
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희곡에서 해설은 무대나 등장인물,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설명하
는 역할을 한다.

ㄷ. 이 글에는 다양한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
고 있지 않다.

▶ 참고 자료

희곡의 특성

주로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함.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또한 대사와 행동은 인물의 심리와 태도, 성 격을 나타냄.
현재형의 문학임.	관객의 눈 앞에서 사건을 바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 문에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함.
시공간적 제약이 있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을 구현함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음. 이 경우, 필요한 장 면을 대사로 처리하기도 함.

02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남자'와 '여자'이고, 보조적 인물은 '하
인'이다. '하인'은 '남자'에게서 넥타이를 빼앗아 간 것처럼, 시
간이 지나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기계적인 태도로 회수함
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3 '남자'는 자신의 요청에 묵묵부답인 '하인'의 귀에 오 분만 더
빌려 달라며 속삭인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여자'는 아직
'남자'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여자'가 '남자'의 체면을
생각해 '남자'가 '하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척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남자'는 넥타이를 다시 빌리려고 '하인'에게 큰
소리를 쳐 보기도 하고 사정을 해 보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대화

를 시도하고 있지만, '하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② '남자'는 물건을 왜 빼앗겼냐는 '여자'의 질문에 "난꼭하게 주
인을 댈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
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라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남자'
가 '여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이어 가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하인'이 '남자'의 넥타이를 빼앗아 간 이유에 대해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 것에서, '여자'가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여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에서, '남자'가 대답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남자'는 '여자' 앞에서는 "여봐, 가져와!"라고 '하인'에게 큰 소
리로 말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들키지 않
기 위해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남자'가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는 장면에서, '남자'는 '하인'에
게 물건을 빼앗겨 속상한 마음을 비롯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여자' 앞에서는
강한 척 '하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하인'의 귀
에 속삭이면서 '하인'에게 오 분만 더 넥타이를 빌려 달라고 사정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나)에서 '남자'가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
는 것에서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를 속
이고 있는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
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은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도록 연출한 것이다. 작
가는 이와 같이 관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배우와 관객의 경
계를 허물으로써 관객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실감 나게 체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06 (가)에서 '여자'는 자신이 태어나자 자신의 아버지가 달아나
버렸다고 '남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은 아버지
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나)에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남자'
가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여자'가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가 자신의 별명을 부정적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별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와 자신의 어머니를 속였던 아버지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만큼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의 아버지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빌린 재산으로 '여자'의 어머니를 속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여자'가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라고 말한 것에서, '여자'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남자'는 나무는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고양이 는 차츰 늙어지다가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가 언급한 두 예는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젠간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을 드러낸다.

08 '남자'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하며 '여자'를 사랑한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남자'가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한 이유는 '여자'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여자'를 속이고 있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09 [A]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인'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창피한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하는 것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여자'에게 창피한 모습을 들리고 싶지 않은 '남자'의 심리를 적절하게 썼다.	☐
행복을 느끼는 '여자'의 심리를 적절하게 썼다.	☐
'남자'와 '여자'의 상황을 대조하여 썼다.	☐

10 ①은 '여자'가 자기가 들려줄 이야기에 '남자'가 놀랄 것 같다고 하며 머뭇거리듯 말하는 장면이므로, '남자' 쪽을 바라보고 약간 주저하며 말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② '여자'는 자신이 '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슬프고 처량한 표정을 지으라는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여자'는 '덤'이라는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점점 더 목소리

를 크게 외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리운 것을 되뇌듯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여자'가 '남자'가 관객석을 거니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장면이므로, '남자'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탓하듯이 말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므로,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덤'이라는 여자의 별명과 '남자'가 언급한 '나무'와 '고양이'의 예를 통해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진실, 즉 소유의 본질에 대한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시간과 관련지어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2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을 가리킨다. (나)에서 '남자'가 관객에게 물건을 돌려주며 한 말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여자'는 듣지 못하는 대사이므로, 방백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남자'와 '여자'의 대화 위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하인'이 다른 인물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의 "남자는 일어나 ~ 물기에 젖어 있다."라는 해설이나 "여자, 남자의 어깨에 ~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해설 등은 모두 인물의 행동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배경이나 공간 등의 무대 장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 제시된 지시문은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지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조명 효과를 어떻게 주라는 지시가 담긴 내용은 없다.

⑤ 이 글에서 '남자'는 '하인'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 않다.

13 '하인'이 '남자'를 구둑발로 걷어차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인'이 '남자'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보기 어렵다. '하인'은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고 '남자'를 집에서 내쫓는 역할을 한다.

| 오답풀이 | ① '하인'이 '남자'의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 선 채 사진을 들여다본 것은, '하인'이 '여자'의 사진에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③, ④ ‘여자’는 자신과 어머니, 할머니의 사진을 ‘남자’에게 보여 주면서,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자’는 자신의 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과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남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 ~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라고 말한 것에서, ‘남자’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남자’는 ‘사진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음이나 외면적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을 ‘여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5 [A]에서 ‘남자’는 넥타이를 빌렸을 때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처럼 ‘여자’를 세상에서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여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한다. ‘여자’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6 ‘여자’는 ‘남자’가 ‘하인’의 구두발에 차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부축하려 한다(ㄴ). 또한 이렇게 다가온 ‘여자’가 ‘남자’를 부축하며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확신하여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ㄷ).

| 오답풀이 | ㄱ. ‘남자’가 관객에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 망가뜨렸소?”라고 묻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관객의 대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절규하듯 말하는 ‘남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자’ 쪽 조명을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남자’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며 ‘여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를 오해하여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어 떠나려 한 것이다.

17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자’를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는 ‘남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18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자’와 헤어지려고 한다. 하지만 ‘남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여자’라는 말로 사랑을 절규하듯 고백하자, ‘여자’는 끝내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 청혼을 받아들인다.

19 ‘남자’는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이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극의 전개상 ‘여자’의 사진 석 장은 ‘여자’ 가문의 여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객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여자’의 사진 석 장을 관객에게서 빌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②, ⑤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라는 지시문을 통해 ‘남자’가 관객에게서 ‘넥타이’를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통해 넥타이를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행동이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자’와 관객이 소통하는 장면은 극 전개에 필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작가 노트에는 무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작가 노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글을 연극으로 상연하는 데에는 무대에 특별한 조명이나 효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해설에도 그와 관련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고난도 읽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60~063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② 05 경고문 06 ① 07 ③
08 ② 09 ③

01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남자’가 이야기책을 읽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남자’가 읽는 이야기책의 내용은 ‘남자’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어 관객에게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이 ‘남자’의 상황과 심리 및 극의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2 (마)에서 ‘남자’가 가을이 되면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는 나무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늙어가다가 생명을 되돌려주는 고양이를 예로 들어,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

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라)에서 '남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낀 '남자'가 '여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안타깝다거나 슬프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③ '여자'의 아버지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④ '여자'가 '덤'이라는 말에 '뭔가 그리운 게' 있다고 말한 것에서, 자신의 별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를 통해 '남자'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는 아직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여자'는 '남자'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03 <보기>에는 (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 추가된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보기>에 추가된 '나무' 장면은, (마)에 나타난 '남자'의 대사를 영상으로 꾸민 것일 뿐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시나리오 용어

- 이펙트(E.: Effect): 효과음. 화면에 삽입된 음향.
- 클로즈업(C.U.: Close-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 인서트(Ins.: Insert):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것 또는 삽입한 화면.
- 디졸브(Dis.: Dissolve):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는 장면 전환 기법.

04 (나)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벌린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에서 '남자'의 진실한 마음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05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기 위해 주인으로부터 온 "나가라!"라고 쓰인 경고문을 보여 준다. 이 경고문을 통해 '남자'가 빈털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남자'를 떠나려고 하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06 '하인'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택에서 나가지 않는 '남자'를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는다. '하인'은 보통의 구두보다 크게 강조된 구두를 신고 '남자'를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07 ㉠은 단어가 본래 뜻하는 의미 그대로 '조금 더 없어 주거나 받는 대상'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모두 '여자'를 가리킨다.

08 [A]에서 '남자'는 제3자인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며, 자신을 떠나려는 '여자'를 설득하고 있다(ㄱ). 또한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라고 질문하고, 이 질문에 직접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ㄴ).

| 오답풀이 | ㄴ. '남자'가 '여자'에게 진정 가진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여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지, 잘못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변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남자'가 자신의 행동을 확인 받기 위한 내용은 있으나, 지난날의 추억을 나열한 부분은 없다.

09 이 글은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③은 적절한 감상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나온 '덤'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으므로, '남자'와 '여자' 모두 '덤'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② '여자'는 처음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물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여자'의 모습에서 물적 소유에 두었던 사랑의 기준이 바뀐 것을 엿볼 수 있다.

④ '하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자'에게 빌려준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온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유한한 삶과 소유의 유한성을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남자'가 관객에게 소품을 빌리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기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

참고 자료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와 주제 의식

	초반	후반
'남자'	결혼하려면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자'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에 있어 물질적인 조건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함.

04 교술 갈래

화단_이태준

문제 확인

본책 066~067쪽

01 ② 02 ① 03 ⑤

01 (바)에서 '그런 미완품이 있을까?'라는 의문형 진술이 나타나지만, 이는 독자에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안손님', '재공', '일고지혜' 등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나 한자어를 사용하는 예스러운 어투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③ '도닥도닥', '성큼성큼'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노인이 가공한 '석류나무'와 되는 대로 자라나는 '봉선화'의 특성이 대비되고 있으며, '석류나무'보다 '봉선화'가 더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평가에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더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⑤ 노인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자연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교훈적 수필

작가의 오랜 체험이나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수필을 말한다. 내용과 문체가 중후하며, 작가의 신념과 삶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02 글쓴이는 노인이 화초들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며 불유쾌를 느낀다. 따라서 글쓴이는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체념적: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따위를 아주 버리고 더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③ 관조적: 행동력이 없이 무관심하게 보거나 수수방관하는 것.

④ 호의적: 좋게 생각해 주는 것.

⑤ 예찬적: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

03 (바)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는 신의 작품으로서 완전한, 즉 자연 그대로가 지닌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68~071쪽

01 ① 02 ③ 03 ④ 04 봉선화 05 ①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④ 11 ① 12 휴식(안식)의 시간 13 ㉠은
꺼지지 않는 불빛 때문에 나무들이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비정상
적인 상황으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낸 현대 사회의 병폐로 볼
수 있다. 14 ③

01 이 글은 글쓴이의 신념과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교훈적인 내용의 수필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체험과 사색 과정은 어떠한지,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오답풀이 | ② 서정 갈래를 읽는 방법이다. 서정 갈래의 글은 시구 및 문장 배열의 규칙성을 찾아 운율을 느끼며 읽는다.

③ 역사적 사건을 다룬 서사 갈래를 읽는 방법이다. 서사 갈래는 허구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허구적 내용을 구분하며 읽는다.

④ 이 수필의 글쓴이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뿐, 노인과 직접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⑤ 이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로, 중간에 다른 서술자로 바뀌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교술 갈래의 형상화 방법

- 서술자는 글쓴이로, 직접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함.
- 자유로운 형식, 독특한 발상 및 표현으로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냄.
-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함.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ㄴ, ㄷ).

| 오답풀이 | ㄱ.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확인할 수 없다.

ㄴ. 글쓴이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라)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가꾼 석류나무에 대하여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노인의 감상 평에 동의할 수 없음을 돌려 표현한 것이지, 글쓴이의 안목이 부족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석류나무보다도 구석 응달 밑의 봉선화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였다.

05 ㉠에 들어갈 말은 ‘일고지혜(一顧之惠)’로, 잠시 행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는 이익이 됨을 뜻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보살핌의 의미로 사용되며, 봉선화가 노인의 보살핌 없이 자라나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에서 사용되었다.

❏ 오답풀이 ❏ ② 고육지책(苦肉之策):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③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④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

⑤ 살신성인(殺身成仁):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06 ㉠은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이다(b). 글쓴이는 열거와 이중 부정을 활용하여 노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d).

❏ 오답풀이 ❏ a.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인식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c. 대조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07 ‘어정거리다(㉡)’는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다.’를 의미한다.

08 노인은 비를 충분히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보며 하늘의 물인 비만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은 소생한 화초를 보고 한 말이므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09 ‘손아’, ‘안손님’, ‘재공’, ‘억조창생’ 등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나 한자어를 사용하는 예스러운 어투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10 (가)의 시적 화자는 화초를, (나)의 글쓴이는 가로수를 소재로 하여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상징적
소재	광화문에 서 있는 나무들
주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 비판
특징	•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을 비판함. • 역설법, 도치법, 의인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함.

11 (가)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나무를 보며 불유쾌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글쓴이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전구를 달아 불꽃 나무가 된 겨울나무를 보며 불유쾌를 느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2 (가)에서 ‘어둠’은 만물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휘황한 불빛에 쉬지 못하게 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는 생태적 관점에서 생태 문학의 가치를 설명한 글이다. (가)는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로,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는 자연의 순리를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는 시구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어(시구)를 포함하여 ㉠이 가리키는 바를 썼다.	☐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썼다.	☐

❏ 참고 자료

생태적 관점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둘 사이의 상호보완 관계를 설명하려는 관점을 말한다. 생태적 관점에서는 자연을 도구로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경계한다.

14 매체 선택 시에는 소통 목적, 화제, 매체의 언어적 특성 및 영향력, 매체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배경지식 및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낯설고 새로운 기능은 매체 선택 시 유의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고난도 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72~073쪽

01 ⑤ 02 ⑤ 03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 04 ④ 05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하며, 빗물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06 ④

01 (나)의 시적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의 회복에 대한 희망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손아', '억조창생', '일고지혜' 등 현재에 잘 쓰이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예스러운 어투로 글쓰이의 개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는 동상과 건물을 의인화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③ (가)는 노인의 화단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고, (나)는 광화문에서 있는 겨울나무를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인위적인 것을 비판하며,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02 노인은 자신이 가꾼 화초에 대해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화초를 보며 오히려 불유쾌를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노인이 가꾼 화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의 서술자이자 글쓴이인 '나'는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② 노인은 자신의 병든 화단을 살리기 위해 조석으로 물을 주고,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한다.

③ 비 온 후 소생한 화초들을 보고 노인이 "그저 하늘 물이라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연의 힘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노인은 화초를 가공하는 자신의 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겨 자신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화초들을 손님들에게 구경시킨다.

03 글쓴이는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나)는 겨울밤에 불이 환하게 켜진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인간 역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은 영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의 시공간적 배경은 겨울밤 광화문 네거리이다.

② 1연의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에서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적 화자는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달갑지 않아 하므로, 한 인물이 등장하여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씩씩하게 지켜보는 장면은 적절하다.

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이므로, 무겁고 적막한 분위기의 음악이 어울린다.

05 [A]에서는 병들어가던 화단이 비가 온 후에 소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힘에 대해 깨닫는 노 주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빗물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고, 노 주인이 주던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A]에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바르게 찾아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06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병폐로 볼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74~081쪽

01 ④ 02 불빛의 따뜻함 03 ④ 04 이 시에서 '불빛', '작은 지붕들', '누군가 맞잡을 손'은 희망, 위로, 위안 등의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밤', '어둠'은 고난, 슬픔, 시련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05 ⑤ 06 도서관 07 ⑤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④ 15** '덤'은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얻어 주거나 받는 물건을 뜻한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6 ⑤ 17 ② 18 ① 19 ④ 20**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21 ① 22 ①**

01 1연과 3연에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우리말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두어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불빛의 따뜻함, 위로의 힘)를 강조하고 있다.

02 '불빛의 따뜻함'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인 '불빛'이 촉각적 이미지인 '따뜻함'으로 감각이 전이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03 이 시는 길을 잃고 헤매었던 시적 화자가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 시이다. 시적 화자는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불빛’과 같은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읽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04 이 시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불빛’, ‘작은 지붕들’, ‘누군가 맞잡을 손’)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밤’, ‘어둠’)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평가기준	확인 ☒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불빛’, ‘작은 지붕들’, ‘누군가 맞잡을 손’)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밤’, ‘어둠’)로 분류하여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05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을,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일시적 속성을, ㉡은 지속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이 소설에서 도서관은 고인의 마인드를 보관하는 추모 공간으로, 이곳에서 ‘지민’의 엄마(마인드)가 분실된다. ‘지민’이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07 이 글의 시점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지민’의 생각과 감정은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한 행동을 묘사하거나 그 인물의 말을 대사로 보여 주기만 하고 있다.

08 (다)에서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 기록된 사실을 우편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마인드를 등록한 사람은 ‘지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다)의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 뿐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의 엄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② (라)의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은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에게 집착했던 엄마에 대한 반발심을 함께 느꼈다.

③ (가)의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은 죽은 이후 실종되었다는 엄마의 소식에 당황하며, 생전에 외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다.

④ (마)의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은 배 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엄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했다.

09 엄마가 죽은 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적도,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엄마가 죽기 전에도 ‘지민’과 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지민’과 ‘현욱’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지민’이 엄마의 모습을 유사한 문장으로 나열한 부분에서 엄마와 관련하여 ‘지민’이 상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ㄷ).

| 오답풀이 | 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ㄷ. 제시된 장면에서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가)에서 ‘현욱’은 아내의 유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지민’에게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글에는 ‘현욱’이 그 의미를 깨닫는 과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다)에서 ‘지민’은 마인드에 접속하여 만난 엄마가 진짜 같다고 생각하여 속으로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라며 되뇌인다.

② (가)에서 ‘현욱’은 아내가 죽어서까지 자신을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로 보아 아내가 살아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지민’은 아빠가 엄마의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을 알고, 아빠에게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다.

⑤ (나)에서 ‘지민’은 자신을 임신한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보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민’은 엄마의 과거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12 '은하'가 '지민'의 손끝을 잡으며 화해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마무리 보아, 시선을 피하던 '은하'가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유는 진심을 전하려는 '지민'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3 이 글은 회곡으로,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 오답풀이 | ①, ③, 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회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을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고,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한다.

② 회곡은 관객의 눈앞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화하여 보여 준다.

14 (다)에서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상대가 '남자'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거리감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15 '덤'이라는 '여자'의 별명을 통해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에 관한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글의 주제를 썼다.	☐
'덤'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16 ㉠은 배우가 관객에게 다가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부분이다. 이는 관객이 극 중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다 실감 나게 느끼도록 한다.

17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 한다. 자수성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남자'의 상황과 관련 없다.

18 글쓴이는 '도닥도닥', '성큼성큼' 등의 생동감 있는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스러운 어투로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상 간의 대비를 통해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글쓴이가 노인을 관찰하고 생각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⑤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서술자가 되어 직접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한다.

④ 친근한 어투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9 봉선화는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아 본성을 실현한 자연물이다.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봉선화를 인위적으로 가꾼 석류나무보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20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라)의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가위로 잘리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나무의 모습을 '불구, 기형, 재변'이라고 열거하며, '안 할 수 없다'는 이중 부정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21 ㉠은 '수돗물'로 인위적인 것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모두 '빗물'로 자연적인 것을 가리킨다.

22 이 글의 글쓴이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드러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만 개의 꼬마전구들'과 같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어둠'은 자연의 순리에 맞는 상황이므로,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서 불유쾌를 느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눈곱'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눈꺄]로 발음하며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눈꺄'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엷히고설켜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엷히고설켜서]로 발음하며 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엷히고설켜서'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생길는지'는 유음화가 일어나 [생꺄른지]로 발음하며 유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꺄른지'로 표기해야 한다.

10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발음과 표기 생활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자신의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입** 고단원 심화 문제

본책 087~089쪽

01 '먹'의 'ㄱ'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멍물]로 발음된다. 02 ② 03 ① 04 ② 05 ② 06 '얹던'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얹던'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안턴]으로 발음한다.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1 ③ 12 까지 → 가시, 쪽집게 → 족집게, 찌어 → 집어

01 '먹물'은 '먹'의 음절말 파열음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어 [멍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음운 변동 과정을 밝혀 썼다.	☐
'~로 발음된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썼다.	☐

02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가 있고,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있다. '파랳다'는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만 일어나 [파:라타]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① '눅혔다'는 ㉠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누꺄따]로 발음한다.

③ '급박하다'는 ㉠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급빠카다]로 발음한다.

④ '눅다랳다'는 ㉠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눅따라타]로 발음한다.

⑤ '솔직하다'는 ㉠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솔찌카다]로 발음한다.

03 '관리', '설날', '실내', '물난리', '물놀이'는 비음 'ㄴ'의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각각 [괄리], [설:랄], [실래], [물랄리], [물로리]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② 거센소리되기에 관한 설명이다.

③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⑤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04 '안다'는 '알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의 받침 'ㄴ, 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안다]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① '먹었다'는 'ㅍ[ㄷ]'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머꺄따]로 소리 난다.

③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어찌할빠]로 소리 난다.

④ '끓고'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ㅁ'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꺄:꼬]로 소리 난다.

⑤ '달성(達成)'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달쌩]으로 소리 난다.

➤ 참고 자료

어간과 어미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작고, 작으니'에서 '작-'과 같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고, -으니'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어미이다.

05 '말형'의 '말'은 '말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형'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윗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 명사이다. 따라서 '형'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앞'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

06 '얹던'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안턴]으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첫 문장에서 '된소리되기'가 틀렸다고 썼다.	☐
두 번째 문장에서 '거센소리되기'와 음운 변동 과정을 썼다.	☐

07 '놓지'는 예사소리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치]로 발음한다. '넘고'는 용언어간의 받침 'ㄹ'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넘:꼬]로 발음한다.

08 <보기 1>은 모음 탈락과 반모음 첨가에 관한 설명이다. 문맥상 '나아서'는 '병 따위가 발생하다.'의 뜻을 가진 '나다'의 활용형이다. '나서'는 '나- + -아서'에서 모음 'ㅏ'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나서]라고 발음한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므로, '나서'로 표기한다. '피어'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났으며, [피어/피여]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만, '피어'로 표기한다. '개어'는 발음과 표기 모두 '개어[개어]'이다.

| 오답풀이 | ㉠ '서서'는 '서- + -어서'에서 'ㅣ'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서서]로 발음한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므로, '서서'로 표기한다.

㉢ '되어'는 [되어/되여]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만 '되어'로 표기한다.

09 '천 리'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철리]로 발음한다.

10 <보기>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예이다. '커'와 '써서'는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미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다.

11 이 글에서 어두에서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일은 말씨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과 사무실'을 '꽈 사무실'로 발음하면 말씨가 거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에서 된소리를 쓰지 말아야 할 말에서마져 된소리를 쓰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② 이 글에서 된소리화 경향은 단어의 철자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④ 이 글에서 된소리화 경향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⑤ 이 글에서 예사소리를 계속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12 <보기>에서 '까시', '족집게', '집어'는 불필요하게 된소리를 사용하여 철자에까지 영향을 미친 예에 해당한다. 각각의 올바른 표기와 발음은 '가시[가시]', '족집게[족집게]', '집어[지버]'이다.

02 공동체와 의사소통

본책 092~095쪽

꼭 짚어볼 문제

01 ㉠ 02 ㉠ 03 ㉠ 04 ㉠ 05 ㉠ 06 ㉠ 07 말조심을 해야 한다. 08 ㉠ 09 ㉠ 10 ㉠ 11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12 ㉠

01 협력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된 내용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02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를 묻는 '동희'의 질문에 '화성'은 ㉠과 같이 말하며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이를 통해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지만'이란 말은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드러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

04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05 (가)에서 주인의 인색한 대접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김 선생'의 말에는 '완곡하게 말하기'가, (나)에서 '노야', '누실', '왕림하다', '황궁하다' 등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부인'의 말에는 '겸손하게 말하기'가 드러나 있다.

06 (가)의 '김 선생'은 마당에 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술안주로 채소만 내어 주는 주인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닭을 요리하여 대접해 달라는 의도를 완곡하고 재치 있게 말하고 있다.

07 '말이 씨가 된다'는 늘 말하거나 무심코 한 말이 실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속담이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을 할 때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을 해야 함을 뜻하는 속담이다. 두 속담 모두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고난도 **읽** 소단원 심화 문제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이 속담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속담으로 '벽에도 귀가 있다'가 있다. 06 ④ 07 ⑤

08 말을 하는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이다. (나)는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라고 연설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가)의 말하기 방식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예의가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한 표현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④, ⑤ (나)의 말하기 방식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명확하게 말하여 유능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달하려는 의미가 명확하다. 그러나 직설적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이 오히려 거만한 느낌을 주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09 이 글은 소통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겪은 일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한 수필이다. 어느 한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일대기적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 참고 자료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一代記)’는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적은 기록을 뜻한다. 따라서 일대기적 구성이란 인물의 출생, 성장, 고난의 극복과 성취 등의 과정을 모두 다룬 구성을 가리키며 주로 고전 소설 중 영웅 소설에 많이 나타난다.

10 글쓴이의 엄마가 건네는 말에 ‘그 아이’는 “아줌마 나 알아요?”라고 말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타적인 소통 문화에 익숙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11 글쓴이는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소통하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 있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글쓴이의 생각을 독자에게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12 특정 대상이나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나 가치관은 모두 글을 쓸 때 글쓴이의 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험이라도 그 경험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신한 표현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아내야 한다.

01 관련성의 격률이란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2>는 축구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묻고 있으므로,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대답은 적절하다.

+ 참고 자료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라.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02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따르면 상대방과의 견이 다를 경우,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 참고 자료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칭찬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함.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함.
동의의 격률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함.

03 제시된 글은 글쓴이가 듣기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집중하여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ㄷ)와 거짓되거나 과장된 말과 같이 불필요한 말을 경계하며 듣는 태도(ㄴ)를 강조하고 있다.

04 <보기>의 학생은 거짓말을 한 친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르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말은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가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순식간에 퍼진다 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게 한다는 뜻이다.

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다르게 들을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 05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을 해야 함.’ 또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됨.’을 뜻하는 속담으로 말을 할 때는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속담으로 ‘벽에도 귀가 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등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말하기’와 관련하여 속담이 주는 교훈을 정확하게 썼다.	☐
말조심을 뜻하는 속담 한 개를 같이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 참고 자료

‘말조심’과 관련한 속담

- 벽에도 귀가 있다
- 세치 혀가 사람 잡는다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살은 쓰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06 글쓴이는 가끔 가는 시골 마을 유람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자신이 유람한 지역에 얽힌 역사적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라)에서 글쓴이가 “혹시 지금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 봐요.”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안과 시골 버스 안에서 서로 다른 심리를 보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웃의 어색한 침묵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골 버스 안에서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낀다.

③ (가)에서 글쓴이는 엄마의 말과 아이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⑤ (가)에서 글쓴이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나)와 (다)에서 글쓴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 07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가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본책 098~103쪽

대단원 평가 문제

01 ② 02 교체 03 ③ 04 (라)에서 설명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는 ‘행복해’이다. ‘행복해’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으로 축약되어 [행보케]로 발음한다.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③ 10 ⑤ 11 ② 12 된소리화 경향이 심화되면 말씨가 거칠어질 수 있고 단어의 철자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쓰게 될 수 있다.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① 19 ② 20 ⑤ 21 언어 공동체

- 01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으로, 한 단어 안에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빔나다’는 [빔나다] → [빈나다]로 한 단어 안에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02 ㉠ ‘먹물’은 ‘먹’의 ‘ㄱ’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멍물]로 발음된다. ‘ㄱ’이 ‘ㄹ’과 만나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변동 현상 중 교체에 해당한다.

- 03 ‘넙고[넙:꼬]’는 용언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04 (라)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거센소리되기로, <보기>의 노랫말 중 ‘행복해’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행복해’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으로 축약되어 [행보케]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썼다.	☐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를 ‘행복해’라고 썼다.	☐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썼다.	☐

05 (마)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모음 탈락 중 ‘ㅡ’ 탈락에 대한 내용이다. ‘가’는 ‘가- + -아’에서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ㅏ’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하였다.

▶ **오답풀이** | ① ‘따라’는 ‘따르- + -아’로,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하였다.

② ‘아파’는 ‘아프- + -아’로,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하였다.

④ ‘씨’는 ‘쓰- + -어’로,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였다.

⑤ ‘담갔다’는 ‘담그- + -았- + -다’로,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았-’ 앞에서 탈락하였다.

06 (바)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반모음 첨가이다. ‘되어, 피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되어서’를 [되여서]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오답풀이** | ⑥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를 제외하고, 반모음 첨가는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어’는 [세어]로만 발음해야 한다.

㉢ ‘먹었다’는 사동 접미사 ‘-이-’가 쓰인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먹는 행위를 시킨다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반모음 첨가 현상과 관련이 없다.

07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끝인사’는 ‘끝 + 인사’로, ‘끝’의 받침 ‘ㅌ’이 실질 형태소 ‘인사’의 모음 ‘ㅣ’와 만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끝인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바뀌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 [끄딘사]로 발음한다.

08 음운 변동 중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다. 따라서 음운 두 개 중 하나만 남아야 하므로, ㉠에 들어갈 도형은 ‘△’이다.

09 ‘치르어야’는 ‘치르- + -어야’에서 어간 ‘치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므로 ‘치려야’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생길지는’은 유음화가 일어나 [생길른지]로 발음하며,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④ ‘엷히고설켜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엷히고설켜서]로 발음하며,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 참고 자료

엷히고설키다

‘엷히고’는 ‘엷히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인 것이 분명하며, 이 동사는 다시 ‘엷다’의 어간 ‘엷-’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와 어미 ‘-다’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22항과 제15항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하지만 ‘설키다’는 그에 대응하는 원래의 어근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원형을 알 수 없는 표현에 속하여 발음대로 적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엷히고설키다’가 복합어로 올라 있으므로 나누어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키다’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므로 정확한 형태소 분석을 안내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다.

—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2024. 11. 19.)

10 글쓴이는 최근 우리말에서 된소리가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하며 된소리를 쓰지 말아야 할 말에서마저 된소리를 쓰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11 ‘갈등(葛藤)’은 한자어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가 되어 [갈똥]으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①, ③, ④, 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세다, 수세미, 잘리다, 과 사무실’은 표기된 대로 발음해야 한다.

1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어두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일은 말씨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단어의 철자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는 이유를 썼다.	☐
발음과 표기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도록 썼다.	☐

13 ‘동회’는 축구를 잘하냐는 ‘화성’의 질문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동회’에게 상대방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말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14 ‘화성’은 축구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묻는 ‘동회’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5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학생에게 동의의 격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6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③은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의 격률에 따라 대답한 것이다.

17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으로,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8 (가)는 고전 문학 작품으로, '노야', '누실', '왕림하다', '황궁하다' 등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느는 과거의 답화 관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 이 글에는 속담이 쓰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대조하고, 직접 인용 및 역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20 글쓴이는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남과 끊임없이 뭔가를 나누는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 '나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알맞다.

21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문법 요소, 어휘의 의미 및 효과를 고려하여 문맥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언어 공동체

언어 공동체란 유사한 언어 사용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어를 수단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 집단을 뜻한다.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소통으로 엮는 삶

(1) 문학으로 소통하기

길_윤동주

본책 108~109쪽

문제 확인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1 이 시는 시적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4연은 '길', '돌담', '쇠문'과 같은 시어를 통해 '지상'의 공간에 시적 화자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5연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천상'의 공간으로 시적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5연에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지만, 감탄사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는 첫 행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고, 서술어만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종결 어미 '-니다'를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고백적 어조를 드러냄으로써, 시적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등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담을 기준으로 담 이쪽과 담 저쪽으로 대조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영탄법

영탄법은 감탄사(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 호격 조사(아, 야, 이여 등), 감탄형 종결 어미(-구나, -도다 등)를 사용하여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03 시적 화자는 돌담을 더듬다 올라다본 푸른 하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내면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때 '하늘'은 맑고 푸른 대상으로 시적 화자의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며, 시적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04 이 시에서 '길'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과정이자 성찰의 공간으로,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되찾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다.

01 ④ 02 ⑤ 03 ③ 04 4연 05 ⑤ 06 ① 07 답과 최문
은 시적 화자가 있는 현실 세계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08 ③ 09 ② 10 ④

01 문학 소통은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독
자 맥락 등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문학 소
통은 이러한 맥락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
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이므로, 작품에 대한 하
나의 정답이나 해석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
신의 삶을 성찰하며, 본질적 자아 회복을 향한 의지를 형상화
하고 있다.

03 이 시는 ‘-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
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반어적 표현이란 실제의 뜻과 반대로 표현해 의미
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 이 시는 평이하고 고백적인 표현으로 성찰적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있다.
④ 이 시는 독백의 형태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는 경어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의 4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끊임
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05 [A]는 끝없이 이어지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으로, 시
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하얀 국화꽃이 피어 있는 푸른 언덕’에
는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다.

- ! 오답풀이 ! ① ‘교회의 우렁찬 종소리’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
난다.
② ‘그리운 아버지의 흰 목소리’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③ ‘서러움 속에 담긴 아이의 절규’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④ ‘바람이 전하는 후덥지근한 냄새’에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참고 자료

감각적 심상

시어를 읽으면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
용하면 시인이 전달하려는 추상적인 관념을 독자에게 더욱 구체적
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시각적 심상: 색채, 모양, 움직임 등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한 심상
- 청각적 심상: 소리를 통해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심상
- 촉각적 심상: 감촉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 심상
- 후각적 심상: 냄새를 묘사하여 표현한 심상
- 미각적 심상: 맛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 심상
- 공감각적 심상: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하여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
도록 표현한 심상

06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쉼표(.)를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삶
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② 부사어 ‘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시적 화자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를 강
조할 뿐 시적 화자의 처지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④ 주어와 서술어는 일반적인 문장 순서로 제시되었고, 목적
어도 생략되지 않았다.

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한 사람으로, 도중에 다른 화자로 바뀌
지 않았다.

07 ‘담 이쪽’에 있는 시적 화자는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돌담(㉠)’과 ‘쇠문(㉡)’ 때문에 ‘담 저쪽’
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담’과 ‘쇠문’은 시적 화자가
있는 현실 세계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분리하는 동
시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적 화자의 상황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8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a)이자, 시적 화자의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d)이다.

- ! 오답풀이 ! b. 현재 시적 화자는 ‘담’을 기준으로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다.
c.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찾고자 하는 참된 자아가 있는 공간으
로, 자연과 관련이 없다.

09 이 글에서 윤동주의 시가 오늘날의 문학 작품에 미친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

- ! 오답풀이 ! 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
속 상황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윤동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과 비교하여 윤동주
시가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운동주가 이 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의지를 내비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운동주가 이 시에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0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황량한 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12~113쪽

01 ② **02** ④ **03** 고백적 어조를 통해 시적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4** ① **05** ④ **06** ⑤ **07** ② **08** ④

01 1연의 첫 행 ‘잃어버렸습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고 서술어만 제시하여 독자가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시의 5연에 부끄러움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으나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역설은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역설이 쓰이지 않았다.

④ 이 시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시적 대상이 지닌 고귀한 가치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심상으로, 이 시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02 이 시에서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시적 화자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현실에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시는 상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입니다’라는 경어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이에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자아를 성찰하는 시적 화자의 상황을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평가기준	확인 ☒
어조와 관련지어 종결 어미 ‘~입니다’의 반복이 시적 상황의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맞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이 시의 마지막 연 ‘내가 사는 것은, 다만,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는 심표를 두 번 사용하여 구절을 분리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5 ㉠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인 담 저쪽에 있는 존재로, 시적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이다. 반면 ㉡은 담 이쪽, 즉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이다.

06 <보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감상 방법이다. ⑤는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 연관 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④ 운동주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시에 나타난 정서와 시인의 고뇌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작가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동시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문학사적 가치를 밝히고 있으므로 문학사적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으므로 독자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운동주 시에 표현된 ‘부끄러움’의 의미

-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어야만 했던 지식인 청년이, 참회와 성찰의 과정에서 느낀 감정임.
-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 연민 의식에서 비롯되어 미래의 삶을 규정함.
- 운동주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이자, 그의 삶과 시를 지탱해 주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음.

07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문학 비평가의 전문적인 해석보다는 독자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자료

문학 소통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작가 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학 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깊이 있기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거나 비평 혹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08 운동주의 시 「길」의 마지막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창작한 후,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02 독서, 삶의 길 찾기

꼭 짚어볼 만한 평가 문제

본책 115~116쪽

01 ④ 02 ② 03 매체 04 ⑤ 05 첫째,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진로와 연관된 학업과 교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등 06 ② 07 ④ 08 ④ 09 ③

01 <보기>는 진로 탐색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특기, 진로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질문만으로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군은 알 수 없다.

02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글과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므로, 선정한 화제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03 제시된 읽기 활동은 모두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 통합적 읽기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발표 및 토론 등과 같은 독서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다.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하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토론하기, 서평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하기 등이 있다.

04 의미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읽기 결과를 공유해야겠다고 했으므로, 이와 가장 관련 있는 평가 기준은 ⑤이다.

05 진로 탐색 시 읽기 활동은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흥미와 적성, 관심사 등을 확장하거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진로와 연관된 학업과 교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진로 탐색 시 읽기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썼다.	☐
'첫째', '둘째' 표지를 활용하여 썼다.	☐

06 제시된 읽기 결과에는 책을 선택한 이유와 독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읽기 결과와 가장 관련 있는 질문은 '글이나 자료를 선택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07 (가)는 심리학과 삶의 관계를 설명한 글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고(ㄴ), (나)는 색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무의식중에 색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ㄷ).

| 오답풀이 | ㄱ. (가)는 심리학의 가치와 특징을, (나)는 무의식중에 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 글로 '심리'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것은 (나)이다.

08 (가)에서 심리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편견과 고정관념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심리학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심리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실들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한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붉은색 옷을 입으면 팬스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심리학이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09 (나)는 색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를 읽은 학생이 심리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나)의 자료를 더 찾아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고난도 읽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117쪽

01 ③ 02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 03 ③ 04 수준, 난이도 05 ③

01 주제 통합적 읽기를 통해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읽기 방법 및 전략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02 진로 탐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흥미와 특기, 희망, 진로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진로 탐색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세 가지 이상 적절하게 썼다.	☐
의문문의 형태로 썼다.	☐

03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글이나 자료를 주로 읽은 시간과 장소는 읽기 결과에 정리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읽기 결과는 글이나 자료의 주요 내용 및 인상 깊은 구절, 글이나 자료에 대한 독자로서의 평가, 글이나 자료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04 글에 나타난 반응은 어려운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내용을 다른 자료를 선정하여 겪은 읽기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읽기 자료를 선정할 때는 자신의 어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05 <보기>의 학생은 글과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는 선별한 정보를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18~121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시적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06 ④ 07 ② 08 심표를 두 번 사용하여 구절을 분리하였다. 이는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해 준다. 09 ⑤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④ 15 ① 16 ③ 17 ④ 18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사회적 독서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01 문학 소통은 문학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평 혹은 창작 활동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

02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길을 걷고 있다. 이로 보아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쉽게 되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시는 종결 어미 ‘-ㅂ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차분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구성을 말한다. 첫 연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은 같은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음악적 효과를 살리며, 처음과 끝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04 [A]는 끝없이 이어지는 돌담을 끼고 있는 길의 모습을, [B]는 시간의 순환성을 띤 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기에 시·공간의 부조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④ [A]는 ‘돌’이라는 시어를 연달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③ [B]는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05 시적 화자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하늘’은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이끌어 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시적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본모습을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를 인식하고 보인 반응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부끄러움’이라고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이 시에서 ‘돌담’은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리고 ‘담 이쪽’은 현실 세계로 현실적 자아가 있는 곳,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④는 담 이쪽에 있는 시적 화자의 현실적 자아를 의미하고, ⑤는 담 저쪽에 있는 시적 화자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

07 시적 화자가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는 것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한 행위로, 자신이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1연에서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다.

③ 쇠문은 돌담과 같이 담 저쪽으로 가려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④ 긴 그림자는 쇠문이 굳게 닫힌 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시적 화자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시적 화자가 걸어갈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⑤ 풀 한 포기 없는 길은 황량하고 삭막한 모습을 보여 준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이러한 길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08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끊어 읽기를 나타내는 쉼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구절을 분리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장 부호의 명칭을 '쉼표'라고 정확하게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09 <보기>는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한 글이다. 독자 맥락에서 감상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문학 소통을 위한 다양한 맥락에 따른 감상 방법

작가 맥락	작가의 창작 동기나 심리 상태, 생애 등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사회·문화적 맥락	창작 당시의 사회적 가치나 제도,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 감상하기
문학사적 맥락	문학사의 흐름에서 작품이 차지하는 위상, 다른 작품과의 영향 관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감상하기
독자 맥락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며 작품 감상하기

10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비교·분석하며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이다.

11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는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하기(㉠) →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글 또는 자료를 찾아 읽기 계획 세우기(㉡) → 읽기 계획에 따라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 읽기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읽기 결과 공유하기(㉤)

12 자신의 흥미와 특기, 희망 등을 확인하는 질문은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교우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진로 탐색을 위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다.

⑤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행동과 미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13 <보기>에는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14 '정후'가 읽을 자료에서는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학의 가치는 '전주'가 읽을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제시된 읽기 결과는 글이나 자료의 유의한 점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이나 자료를 독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있다.

16 독서 활동의 목적이 자신의 진로 탐색에 있으므로, 예상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집한 자료에서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17 <보기>에 제시된 활동은 모두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 통합적 읽기의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다.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발표 및 토론 등과 같은 독서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다.

18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교류하고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사회적 독서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읽기 결과를 공유할 때 유의할 점을 '사회적 독서 문화'라는 단어를 넣어 적절히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4.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

(01) 비판적 읽기와 주제적 수용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_최훈

문제 확인

본책 126~129쪽

01 ③ 02 ⑤ 03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04 ③ 05 ④ 06 ④ 07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 안 된다. 08 ⑤

01 이 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가정하여 서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여 (가)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욕망이 같다는 공통점을, (나)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다)에서 '인종 차별주의', '종 차별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동물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사례를, (다)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와 흑백 분리 정책 등의 사례를 들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에서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2 (가)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의 권리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나)에서 글쓴이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경험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증 요소

주장	내세우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견
이유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04 (다)의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 차

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에서 ㉠의 내용이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 학대 건수와 함께 성차별, 아동 학대, 인종 혐오 범죄 등도 함께 감소했다는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6 (마)에서 글쓴이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갓난아이를 근거로 들어 동물의 권리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7 ㉠은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 안 된다.'는 두 전제를 바탕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 자료

논증 방법

연역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참인 두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 논법이 이에 속함.
귀납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일반화 논증과 두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유추 등이 이에 속함.

08 (마)에서 '갓난아이'의 사례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 오답풀이 | ① (바)에서 공장식 축산과 동물원,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본능이 무시된 관행이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간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낸다고 하였다.

③ (바)의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에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06 ④

01 이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한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평가하며 읽는 것은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한 수필 등을 읽는 방법이다.

02 (라)에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해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03 (나)에서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⑤ 동물과 사람이 고통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한 점을 들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②, ④ 척추동물의 신경 체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우리가 행동이나 소리로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04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는 그 대상을 느끼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글쓴이는 ‘종 차별주의(㉠)’의 판단 기준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가)~(라)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이 글의 주제는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이다.

06 ㉠의 ‘역설(力說)’은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 문장에 쓰인 ‘역설(逆說)’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의미한다.

▶ 오답풀이 ▶ ① 비밀비재하다: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다.
② 규명하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
③ 동원하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하다.
⑤ 침해하다: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

01 ③ 02 이 글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인간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기>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과 도덕적 책임을 동물과 구별 짓는 요소로 제시하며,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03 ⑤ 04 인종 차별주의와 종 차별주의는 특정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요소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05 ④

01 (가)에서 동물과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한 점을 들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유추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동물권이라는 중심 화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②, ④ 이 글에 활용된 연구 결과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다.

⑤ 이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02 이 글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보기>는 인간의 고유한 이성적 사고 능력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근거로 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과 <보기>의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
<보기>의 관점에 대한 내용을 판단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03 (라)에서 글쓴이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갓난아이(㉠)를 예로 들어 반박하고 있다. 글쓴이는 갓난아이가 우리와 같은 인간 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인종 차별주의자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04 (나)에서 글쓴이는 인종 차별주의(㉠)가 피부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차별하듯이 종 차별주의(㉠)는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차별한다고 말하며 피부색과 종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종 차별주의와 종 차별주의는 특정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요소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05 <보기>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 뉴스이다. 카드 뉴스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본책 136~145쪽

문제 확인

01 ① 02 ④ 03 ③ 04 ③ 05 반대 신문 06 ③ 07 ⑤
08 ⑤ 09 외국의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 10 ⑤ 11 ④
12 ① 13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14 ② 15 ③ 16 ⑤ 17 ② 18 ⑤ 19 ③

01 사회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과 논제를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이 토론의 논제인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가 들어가야 한다.

02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반대 신문-반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식 토론의 진행 순서

입론	-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움. - 입증의 책임이 찬성 측에 있어 찬성 측부터 입론을 시작함.
↓	
반대 신문	상대측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함.
↓	
반론	-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함. -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대 측부터 반론을 시작함.

03 찬성 1은 인공 강우 실험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며, 더 많은 전용 항공기 및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가뭄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통해 실험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04 찬성 1은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의 횟수, 10년간 봄철과 겨울철의 산불 발생 빈도 증가량,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실험 성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05 사회자의 발언 후에 반대 2가 찬성 1에게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요청하고 근거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토론 절차는 '반대 신문'이다.

06 반대 2는 '4월과 12월은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래프 해석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07 ⑤는 찬성 1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찬성 1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 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③, ④ 반대 1은 인공 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를 실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 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인공 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 반대 1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밀리미터 이상 많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하였다.

08 반대 1은 입론에서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맞지만,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⑤를 쟁점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필수 쟁점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을 말한다.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정책 논제의 경우 논제로 제기한 문제가 심각한지, 제시된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지, 그 방안을 실행하여 어떤 효과 및 개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 필수 쟁점이 된다.

09 반대 1은 인공 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국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 1은 외국의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외국의 실문 조사와 관련지어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찬성 2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인공 강우 기술 선진국의 개발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지닌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③ 찬성 측은 인공 강우를 실용화하면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보고,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찬성 측은 인공 강우 기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개발의 역사가 70년 이상이라고 하였다.

11 ㉠은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게 하는 반대 신문이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이 활용한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다.

12 반대 2는 기상 조건에 따라 인공 강우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투입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으므로 인공 강우는 세금 낭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2는 입론에서 인공 강우 시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반대 2는 인공 강우로 강수량을 늘려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반대 측이 인공 강우의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해결책을 모두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찬성 2는 반대 2가 언급한 자료를 보충하여 반대 2가 인공 강우에 투입되는 비용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인공 강우 선진국의 예산을 기준으로 세금 낭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반대 2는 우리나라의 봄과 겨울 대기 상태에 따른 인공 강우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세금 낭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5 사회자는 ㉠에서 다음 토론 순서를 안내하여 토론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 참고 자료

사회자의 역할

- ①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안내한다.
- ② 토론자를 심사자와 청중에게 소개한다.
- ③ 토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 ④ 요약과 질문을 적절히 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 ⑤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을 마무리한다.

16 토론에서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 참고 자료

토론과 관련된 용어

논제	토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말함.
쟁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에서 논의할 세부 주장을 말함.
논증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함.
입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말함.
반대 신문	상대방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며 자기편의 주장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17 인공 강우 실용화에 대해 반대 측은 아직 인공 강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약이 없고(㉠), 인공 강우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론하고 있다. 또한 인공 강우가 필요한 봄철과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 인공 강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 ㉡ 찬성 측의 반론 내용에 해당한다.

18 찬성 측은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 절약 캠페인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19 맥락상 인공 강우 실험으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에 들어갈 말로 ‘갈등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을 의미하는 ‘분쟁’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동맹: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약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

② 교류: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 ④ 규정: 규율을 세워 바르게 정리함.
 ⑤ 협약: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

꼭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46~149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정서적 반감 11 ③ 12 ③

- 01 토론에서 입증의 책임은 찬성 측에 있기 때문에 찬성 측부터 입론을 시작한다.
 02 이 토론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이다. 토론에서는 인공 강우 실용화라는 특정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한 찬반을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논제의 종류

사실 논제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관계를 다루는 논제. 주로 역사적 사실, 법정 재판, 인사 청문회 토론 등에서 사실 논제로 토론함.
가치 논제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 대부분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정책 논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함.

- 03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 강우를 시행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찬성 측이 말하는 부분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전용 항공기 및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토론을 시작할 때 사회자는 토론의 진행 배경을 설명하고(㉞)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였다(㉜). 그리고 토론 순서를 지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㉝).
| 오답풀이 | ㉞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㉝ 토론에서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
 05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토론에 앞서 논제에 쓰인 '인공 강우'와 '실용화'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토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토론의 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6 찬성 측은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하였다. ㉞에는 인공 강우의 실효성과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인공 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이 적절하다.

07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가뭄과 산불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것에는 동의하며, 이것이 인공 강우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08 반대 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기술적 한계,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대해 반대 측은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09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시한 설문 조사 자료가 외국의 것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 오답풀이 | ㉞: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이 많고,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㉝ ㉞: 반대 측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면, 산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㉜ ㉝: 반대 측은 지구 환경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인공 강우 시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㉝ ㉞: 찬성 측은 2010년에 기상청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여 인공 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600억 원을 넘는다고 하였다.

10 반대 신문에서 반대 1은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이 인공 강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인공 강우를 시행하는 것을 우려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㉞에 들어갈 말로 '정서적 반감'이 알맞다.

11 반대 측은 근거 자료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찬성 측에서는 인공 강우로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12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하고,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01 ③ 02 ⑤ 03 ④ 04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는 인공 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가? 05 ⑤ 06 ⑤

- 01 이 토론은 정책 논제를 다루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제시된 논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대방에게 논제와 관한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형식이다. 주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며 크게 입론-반대 신문-반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반대 신문' 또는 '교차 조사'라고 부르는 질문은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다. 질문자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어 질문함으로써, 자기편이 유리하게 토론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질문의 과정을 통해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02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입론한 후에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어 반대 측이 입론한다. (가)와 (나)는 각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에 해당하므로, (가)와 (나) 사이에는 반대 측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하는 장면이 적절하다.

- 03 (나)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에서 반대 1은 상대측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하지만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은 바꾸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찬성 1은 '인공 강우'와 '실용화'의 개념을 정의하여 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② 반대 1은 다른 나라의 물 사용량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의 횟수, 10년간 봄철과 겨울철의 산불 발생 빈도 증가량,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실험 성과 등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⑤ 반대 2는 국회 국정 감사 결과와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04 (가)에서 찬성 측은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반면, (나)에서 반대 측은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예방하는 데 인공 강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필수 쟁점은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는 인공 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가?'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필수 쟁점을 '인공 강우'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썼다.	☐
의문문의 형태로 썼다.	☐

- 05 (다)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찬성 측은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예산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예산이 적은 편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다.

- 06 <보기>의 자료는 인공 강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토양 오염과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인공 강우가 자연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논할 때, 반대 측이 화학 물질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보기>의 연구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52~15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⑤ 09 ㉠에는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와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이 쓰였다.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 실용화가 어렵다. 둘째, 인공 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인공 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17 ⑤ 18 ④

- 01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성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며 읽어야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2 글쓴이는 이 글에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들이 야생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상충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글쓴이는 동물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존재이며,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다. 동물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평론은 동물을 인간과 구별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4 ㉠은 동물과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한 점을 들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유추하고 있다. 유추는 논증 방법 중 귀납에 해당하며, 귀납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으로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한 권리를 제외하고, 동물의 타고난 본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 이성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글쓴이는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 드러낸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1970년대에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예전부터 인간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갓난아이의 사례를 통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도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06 글쓴이는 철학자 피터 싱어,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 등 유명 인사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7 글쓴이는 (다)에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글쓴이가 예상하는 반론은,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갓난아이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며 동물의 권리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④ 글쓴이는 생물학적 종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③ 동물의 권리를 인정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글쓴이는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08 ‘인종 차별주의(㉠)’와 ‘종 차별주의(㉡)’는 모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은 피부색이라는 외형적 차이를, ㉡은 생물학적 종이라는 본질적 차이를 근거로 차별한다. 피부색과 생물학적 종은 모두 대상을 차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의 사례로 흑인 노예 제도와 흑백 분리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 제도와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관행에 해당한다.

④ 철학자 피터 싱어는 ㉠에 빚댄 ㉡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

09 ㉢에는 모두 참인 두 전제에서 반드시 참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연역이 쓰였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참인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 논법이 이에 속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전제’, ‘결론’이라는 단어를 넣어 논증 방법을 썼다.	☐
㉢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썼다.	☐

10 <보기>의 카드 뉴스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유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유세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카드 뉴스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뉴스이다. 이미지를 옆으로 밀어 보는 것이 특징이며 작은 휴대전화 화면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1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제의 배경 및 논제와 관련한 토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언할 토론자를 지정하여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12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의 횟수, 10년간 봄철과 겨울철의 산불 발생 빈도 증가량,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실험 성과가 제시되었으나, 그와 관련한 국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은 없다.

❏ 오답풀이 ❏ ①, ③ 실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입론을 시작할 때 논제에 쓰인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토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실험 성과를 언급하며 인공 강우의 실용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13 반대 2는 찬성 측이 제시한 그래프에서 4월과 12월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라며 찬성 측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가)~(라)는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이 뒤에 이어질 토론 절차는 반론으로,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 참고 자료

반대 신문식 토론의 진행 방식

찬성 측		반대 측	
찬성1 (제1 토론자)	찬성 2 (제2 토론자)	반대 1 (제1 토론자)	반대 2 (제2 토론자)
① 입론			② 반대 신문
④ 반대 신문		③ 입론	
	⑤ 입론	⑥ 반대 신문	
	⑧ 반대 신문		⑦ 입론
⑩ 반론		⑨ 반론	
	⑫ 반론		⑪ 반론

15 (라)에서 찬성 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한 예산을 기준으로 세금 낭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는 반대 측이 제시한 내용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반대 측은 사람이 일으킨 산불의 비중이 전체의 59퍼센트에 이를 정도라며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사람의 실수를 내세우고 있다.

② (다)에서 반대 측은 가뭄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반대 측은 인공 강우가 성공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반대 측이 말한 내용을 통해 찬성 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반대 측은 주장 ㉠에 대한 이유를 ㉠의 뒤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부족, 인공 강우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 주변 국가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그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우리나라의 기술력 부족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
인공 강우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
주변 국가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
'첫째', '둘째', '셋째'의 표지를 활용하여 썼다.	☐

17 ㉠은 구름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화학 물질 내 독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인공 강우 시행 시 화학 물질의 독성이 포함된 비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염려했던 반대 측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18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해 미국의 설문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이로 보아 찬성 1은 반대 측이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외국의 것으로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5. 생각을 담은 말과 글

(01)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

꼭잡게 **꼭**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62~16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③ 08 ④
09 ①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① 15 ⑤ 16 ④
17 ⑤ 18 방송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19 ①
20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21 ④ 22 ①

01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 인구 이동이나 문화 교류 등의 영향으로 변화가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는 우리의 언어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주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참고 자료

언어 공동체

언어 공동체란 유사한 언어 사용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어를 수단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 집단을 뜻한다.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2 <보기>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호우(豪雨)’는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 오답풀이 | ①, ② ‘속살거리다’와 ‘버선’은 고유어이다.
③, ⑤ ‘디스카운트’와 ‘슬리퍼’는 외래어이다.

03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어휘는 모두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학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로,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 전제, 추론, 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고 도구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어,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사고 도구어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성격을 지닌 어휘로,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04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어휘는 전문어이다.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의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이므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전문어는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②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다.

④ 남북한 언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다.

⑤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은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다.

05 ‘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드렸다.’는 특수 어휘 ‘드리다’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였으므로 객체 높임 표현이 실현된 문장이다.

| 오답풀이 | ②, ③, ④, ⑤ 각각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동네 어르신’을 높여 표현하였다.

06 ‘왔어요’는 상대 높임 표현 중 해요체를 사용한 표현으로, ‘할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용언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부탁하신’이라고 표현하였다.

③, ④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고,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07 (가)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친구끼리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여학생의 말 중 ‘생각해?’는 해체로, 비격식체의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비격식체는 주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일 때 사용한다.

+ 참고 자료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표현으로 실현된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 서 쓰는 표현으로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낸다.

08 ‘계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의미하는 ‘있다’의 높임말이기 때문에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④의 경우처럼 주어를 간접 높이는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해 ‘있으시다’로 표현해야 한다.

09 시제는 청자가 듣는 시점이 아닌,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눈다. 화자가 말하는 시점(발화시)을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사건시)의 위치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눌 수 있다.

➤ 참고 자료

시제의 종류

과거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였-', '-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 부사어 '어제', '아까' 등으로 표현함.
현재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부사어 '지금', '현재' 등으로 표현함.
미래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 선어말 어미 '-겠-', '-(으)ㄹ', 관형사형 어미 '-(으)ㄹ', 부사어 '내일', '장차' 등으로 표현함.

-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현재 시제에서는 시제 표시 없이 사용한다. 따라서 ④에서 형용사 '아니다'는 기본형으로 쓰였으므로, 이 문장은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 ①, ②, ③, 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었-/았-'이 쓰였다.

- 11 시간 부사어인 '곧'으로 보아 비바람이 부는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므로, '비바람이 곧 불겠다.'라는 문장은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 12 '동생은 밥을 먹고서 집을 나갔다.'는 완료상 연결 어미 '-고서'를 사용하여 동생이 밥을 먹은 행위를 완료하고 집을 나섰음을 나타낸 문장이다.

▶ 오답풀이 ▶ ① '돌다'에 '-아 오다'를 붙여 해가 떠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하다'에 '-고 있다'를 붙여 공부를 하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듣다'에 '-(으)며'를 붙여 음악을 듣는 동작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청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읽다'에 '-는 중이다'를 붙여 책을 읽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13 '친구가 다리를 절면서 집에 갔다.'는 진행상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친구가 다리를 저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집에 갔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문장이다.

- 14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의 '버리면'은 원래 어간의 형태가 '버리-'인 동사이다.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 15 행위의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주로 피동문을 사용한다. ㉠은 능동문으로, 행위의 주체인 손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③ ㉠은 행위의 대상인 '그릇'이 주어진 피동문이고, ㉡은 행위의 주체인 '손녀'가 주어진 능동문이다.

④ ㉢의 '깨지다'는 동사의 어간 '깨-'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었다.

- 16 '그는 항상 사람들을 웃겼다.'는 그가 사람들을 웃게 하였다는 의미의 사동문으로, 피동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참고 자료

사동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동사 어간에 붙어 사동을 만들어 주는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있다.

- 17 '잘려지다'는 '자르- + -리- + -어지- + -지-'로,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잘리지'로 써야 한다.

- 18 '김 기자'는 전문가의 연구 자료임을 강조하고, 방송 보도의 내용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피동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피동 표현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용에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9 이 글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을 간접 인용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고, 셰익스피어의 말을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강연에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그 말이 실제로 누군가 한 말임을 표현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ㄱ). 또한 직접 인용 표현은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ㄴ).

▶ 오답풀이 ▶ ㄷ. 인용 표현은 누군가의 말을 문장 안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ㄹ. 반어법의 표현 효과에 해당한다. 인용 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20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을 문장에 맞도록 적절히 바꿔야 한다. 또한 큰따옴표 없이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간접 인용으로 적절히 바꿔 썼다.	☐
‘당신’을 ‘자신’으로 바꿔 썼다.	☐

- 21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인용절의 ‘우리 언니’를 ‘자기 언니’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22 제시된 문장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던 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었다. 또한 ‘선생님이’는 ‘선생님께서’로 바꾸어 잘못 쓰인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쳐 썼다.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166~167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③ 05 ① 06 ② 07 ② 08 ①
09 생각한 내용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생각된다’에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생각된다’를 ‘생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10 ②

- 01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각 지방의 말이다. 지역 방언의 사용은 같은 지역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02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할 때는 의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인인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②, ④, ⑤ 같은 전문 분야의 사람들끼리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어를 사용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03 <보기>에서 한 개의 고유어에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자어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 자료

한자어

한자어란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념이나 추상어가 많아 분명하고 자세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고유어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말 어휘 체계 내에서 공존해 오면서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어 ‘말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어에는 ‘설명(說明)하다’, ‘변명(辨明)하다’, ‘언급(言及)하다’, ‘주장(主張)하다’, ‘요청(要請)하다’, ‘의미(意味)하다’, ‘진술(真術)하다’, ‘해명(解明)하다’, ‘대화(對話)하다’ 등이 있다.

- 04 ‘할머니께서는 나와 누나를 다정하게 안아 줬다.’에서 높여 표현할 대상은 주체인 ‘할머니’이므로 ‘줬다’를 ‘주셨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드리다’는 객체를 높여 표현할 때 사용하는 특수 어휘이다.

| 오답풀이 | ①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 표현해야 하므로, ‘보러’를 ‘뵈러’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 표현해야 하므로, ‘아버지가’를 ‘아버지께서’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청자인 ‘할머니’를 높여 표현해야 하므로, ‘오겠다’를 ‘오겠습니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 표현해야 하므로, ‘아쉬워했다’를 ‘아쉬워하셨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참고 자료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

- 주체 높임 표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주무시다, 계시다’ 등을 통해 실현됨.
- 상대 높임 표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 객체 높임 표현: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주로 ‘뵈다, 드리다, 모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기도 함.

- 05 <보기>에 따르면, 상대 높임법 중에서 격식체에 해당하는 ‘하계체’나 ‘해라체’가 쓰인 문장을 찾아야 한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계.’는 ‘하계체’가 쓰인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②, ③, ④ 비격식체인 ‘해체’가 쓰였다.

⑤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쓰였다.

- 06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그러나 ㉠의 ‘버스를 놓쳤으니, 등교 시간에 늦겠다.’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

의미	예
추측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의지(의도)	이 일은 내가 꼭 하겠다.
가능성(확신)	서울이는 벌써 도착했겠다.

- 07 ‘나’와 엄마가 닮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난 어려서부터 엄마를 닮았다.’의 ‘-았-’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된 경우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08 <보기>의 문장은 현재 기차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현재 시제, 진행상).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 가고 있다.’도 현재 땅이 마르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오답풀이 ❏ ㉡ 과거 시제로, 동생이 간식을 먹은 행위가 완료된 상태이다.

- ③ 과거 시제로, 계단에 앉은 행위가 완료된 상태이다.
④ 과거 시제로, 과거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⑤ 미래 시제로, 학교에 다니는 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 09 ‘생각’의 주체는 본인이므로 ‘생각되다’라는 피동 표현보다는 ‘생각하다’라는 능동 표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생각된다’는 ‘생각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생각된다’를 ‘생각한다’로 바르게 고쳤다.	☐
표현이 잘못된 이유를 ‘피동 표현’이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

- 10 <보기 2>의 문장은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었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의 ‘저’는 ‘자기’로 고쳐야 한다.

참고 자료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의 변화 양상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상대 높임법은 중화되며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다고(평서문, 감탄문)’, ‘-냐고(의문문)’, ‘-라고(명령문)’, ‘-자고(청유문)’ 네 가지의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다.

0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본책 169~172쪽

꼭 짚어볼 문제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③ 10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누리 소통망이 등장하여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였다. 11 ⑤ 12 ② 13 ②
14 ⑤ 15 쓰기 맥락

- 01 제시된 활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는 활동으로,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는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02 자신과 다른 견해가 있는 글을 읽고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을 살피는 첫 번째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 후, 자신의 견해를 글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 03 <보기>에서 학생은 누리 소통망으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고 하였으므로, 학생은 누리 소통망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내용을 전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4 개요 쓰기는 글을 쓰기 전에,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다. 개요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주제와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가?’는 개요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05 이 글의 주제는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이다. 따라서 본론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주제의 내용 범위보다 포괄적이어서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서론에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심 화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본론 1에서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본론 2는 본론 1의 내용에 이어서 누리 소통망의 다른 긍정적인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결론에서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6 <보기>의 자료는 누리 소통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학자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전문 서적이다. 따라서 서론에 이 자료에 제시된 학자의 견해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누리 소통망의 가치를 밝힐 수 있다.

07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공간의 멀고 가까움이나 상하좌우에 따라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라면을 요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08 글쓴이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고 하였으나, 텔레비전과 신문 등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는 하지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인 20세기 이전에는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③ '오늘날 누리 소통망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만큼 그 부작용 또한 있기에 마련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에서 만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며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눔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09 이 글의 서론에서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1문단에서 '과연 누리 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② 글쓴이는 소셜 다이닝 문화의 사례와, 누리 소통망으로 선행이 확산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라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하지만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오늘날 누리 소통망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부작용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 ㉠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간관계가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폭을 넓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1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 ① 해당 쟁점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매체 자료를 더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이 글에서 '소셜 다이닝' 문화의 유행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더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글에서 누리 소통망으로 이재민을 돕는 선행이 확산되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누리 소통망이 큰 힘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④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의 부작용과 함께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다.

12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 등과 같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3 '형식적(㉡)'은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을 위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있는 본바탕과 같거나 그것에 근거하는 것.'을 뜻하는 어휘는 '실질적'이다.

14 <보기>는 누리 소통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가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독자를 설득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15 쓰기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쓰기 맥락이라고 하며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쓰기 맥락에 따라 근거 자료 및 쓰기 전략이 달라진다.

01 ① 02 ③ 03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04 ③ 05 ⑤ 06 ④

01 (가)는 누리 소통망 사용에 회의감을 느끼고 누리 소통망을 끊은 인기 누리 소통망 운영자 ○○ 씨의 사례를 들어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달하고 있다.

02 (가)는 누리 소통망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한다며 이러한 인간관계에 치저 누리 소통망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표제로 누리 소통망을 탈퇴하는 현상을 요약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과 진짜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잘 담고 있는 ③이 적절하다.

03 (가)의 신문 기사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여, 누리 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며 누리 소통망을 떠나는 현상도 다루고 있다.

04 (나)의 '정후'는 누리 소통망으로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며, 누리 소통망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할 뿐이라고 보는 (가)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후'는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글을 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05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현상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관용구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말한다.

예 발이 넓다: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06 이 글의 본문에서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3문단에서는 인간관계를 강화해 주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으며, 누리 소통망

을 통해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와 상반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사·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하지만 21세기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사·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이러한 사례들은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만은 않으며,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하지만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며,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사용자 스스로 누리 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한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01 ③ 02 문화에 따른 언어 관습이나 표현의 차이로 인해 '시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8 대화 상황은 친분 관계를 맺기 전과 후이다. 친분 관계를 맺기 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했지만 친분 관계를 맺은 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0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7 ① 18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19 ④ 20 ⑤

01 언어 공동체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심화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

| 오답풀이 | ① 일원화: 하나로 됨. 또는 하나로 만듦.

② 부조화: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함.

④ 세분화: 사물이 여러 갈래로 자세히 갈라짐. 또는 그렇게 갈라지게 함.

⑤ 세계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

02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한 이유는 문화에 따른 언어 관습이나 표현의 차이로 인해 '시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원하다'를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고 속이 후련해질 때도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문화가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를 잘 모르는 다른 나라나 문화권의 사람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문화에 따른 언어 관습이나 표현의 차이 때문임을 정확하게 썼다.	☐
'시원하다'를 밝혀 썼다.	☐

03 '발그레하다(㉠)'와 '우두커니(㉡)'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인 고유어이고, '찬란하다(㉢)'와 '형언하다(㉣)'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버스(㉤)'와 '벨(㉥)'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다.

04 '서서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디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속도가 느리거나 진행이 더디다는 뜻으로, '서서히'보다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글쓴이는 이전의 기술 발전이 느리고 한계가 있었다는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서서히'를 '더디게'로 고치고, 과학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을 바탕으로'를 '덕분에'로 고쳤을 것이다.

05 <보기>에는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가 쓰였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쓰이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위장하지 않는다. 위장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은어이다.

참고 자료

은어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로, 은비(숨겨 비밀로 함)의 기능을 발휘한다. 은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은어가 외부 집단에 알려져도 은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평범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장의 기능이라고 한다.

06 '잡수시다', '여쭙다'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이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여 표현하였다.

07 ㉠의 높임 대상은 '아버지'이고 ㉡의 높임 대상은 '할머니'로, ㉠과 ㉡ 모두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오답풀이 | ㉠, ㉡ '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객체 높임 표현).

㉢ 격식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상대 높임 표현).

08 화자는 처음에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친분 관계를 맺기 전임을 추측할 수 있고, 1년 후의 화자는 비격식체 중 해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친분 관계를 맺은 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인식이 변화하므로 높임 표현은 변화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황과 높임 표현의 변화를 모두 정확하게 썼다.	☐
상황과 높임 표현의 변화를 각각의 문장으로 썼다.	☐

09 '치러진'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다.

참고 자료

관형사형 어미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로 '-(으)ㄴ', '-는', '-던', '-(으)ㄹ' 등이 있다.

10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진행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주로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 등으로 실현된다.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주로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

11 '나뉘다'는 '나누이다'의 준말로, '나누다'의 피동사이다. ㉤는 피동 표현이 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쓰인 문장이다.

| 오답풀이 | ① 생각의 주체는 자신이므로, 능동 표현인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깨지게 되었다'는 이중 피동으로, '깨졌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찢겨졌다'는 이중 피동으로, '찢겼다' 혹은 '찢어졌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④ '믿겨지지'는 이중 피동으로, '믿기지'로 고쳐 써야 한다.

12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은 동사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즉 밑줄 친 문장은 방송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13 ㉠의 ‘너’와 ‘좋아해’가 (가)에서 각각 ‘나’와 ‘좋아한다’로 바뀌었다. 즉 대명사와 문장 종결 어미가 모두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가)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글을 읽은 학생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를 읽은 학생이 관심을 갖는 사회적 쟁점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을 알 수 있다.

15 누리 소통망이 어디에서 쓰이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글쓴이가 쓰려는 글의 주제와 구성에 나타나지 않는다.

16 ‘현대 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제하였을 것이다.

17 이 글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누리 소통망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 ② 3문단에서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으로 맺은 인간관계는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의 등장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누리 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누리 소통망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뒤에는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쓰기 맥락’, ‘글쓰기 계획’, ‘개요’를 모두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9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한 후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는지는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실질적’은 ‘실제로 있는 본바탕과 같거나 그것에 근거하는 것’을 뜻한다. ㉠에는 문맥상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을 뜻하는 ‘피상적’이 어울린다.

- | 오답풀이 |** ① 대중적: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중심으로 한 것.
 ② 형식적: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을 위주로 하는 것.
 ③ 부정적: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것.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④ 일시적: 짧은 한때의 것.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본책 182~183쪽

(1) 서정 갈래

① 대조적 ② 어둠 ③ 운율 ④ 공감각적 ⑤ 도치법

01 ② 02 밤 03 [A]에는 <보기>와 달리 도치법이 쓰였다.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배치하여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있다. 04 ④ 05 ① 06 ③ 07 ③

01 이 시에서는 '~은 -리라', '얼마나 -니지'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이 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은 희망, 위로, 위안 등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고, '어둠',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03 <보기>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인 '주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A]는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어순과 다르게 배치하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하며, 이 시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A]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밝히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썼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04 이 시의 1연과 3연에는 시적 화자의 경험, 2연과 4연에는 시적 화자가 경험에서 얻게 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시적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따뜻한 힘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 시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시적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밤을 맞게 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② '어둠'은 고난, 슬픔, 시련 등을 의미하고, '불빛'은 희망, 위로, 위안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 때 불빛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이 시의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다. 따라서 중학생이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이 시를 추천해 주고 싶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시적 화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실의에 빠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05 '불빛의 따뜻함(㉠)'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인 '불빛'이 촉각적 이미지인 '따뜻함'으로 감각이 전이되고 있다. '서늘한 푸른 달빛'에도 이러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오답풀이 | ②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나물의 냄새를 표현하였다.

③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겨울 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④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인생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⑤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냇물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두 가지의 감각은 나타나지만, 감각이 전이되고 있지는 않다.

06 '나그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로(㉠), 외로움이나 절망과 같은 시련을 겪어 본 사람이라는 점에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 오답풀이 | ㉠.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나그네'는 실의에 빠진 누군가를 가리킨다. 자신의 운명을 초연하거나 달관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07 이 시는 실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보기>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②, ⑤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보기>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줄글로 이루어져 있는 산문시로,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연필로 시를 쓰겠다는 다짐을 표출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이 시와 <보기> 모두 관련 없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산문시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시이다. 시행을 나누지 않고 리듬의 단위를 문장 또는 문단에 둔다. 산문과는 달리 시화하여 서정적으로 묘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02 서사 갈래

① 마인드 업로딩 ② 전지적 ③ 지민 ④ 내면 심리 ⑤ 이해

01 ① 02 ④ 03 ④ 04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민'이 엄마의 흔적을 찾는 계기를 제공한 공간이다.
05 관내 분실 06 ⑤ 07 ① 08 "엄마를 이해해요." 09 ⑤ 10 ④

01 이 글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서사 갈래는 작가가 사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전달한다.

▶ 오답풀이 ▶ ② 서사 갈래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한다.

③ 서사 갈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서술자의 설명 등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전개된다.

④ 서사 갈래는 갈등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더하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⑤ 서사 갈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여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02 (나)의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를 통해 마인드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나)의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 실종이 도서관 측의 착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라)의 '자신을 날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3 (라)의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마는 '지민'에게 집착하며 '지민'을 통제하려고 했고, '지민'은 엄마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지민'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어난 엄마

의 마인드 분실이 엄마의 흔적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민'이 엄마의 흔적을 찾는 계기를 제공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썼다.	☐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내용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썼다.	☐

05 이 글의 제목인 '관내 분실'은 도서관 내에 마인드가 존재하지만 검색이 되지 않아서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의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로 미루어 보아, 엄마는 도서관 내에 마인드가 존재하지만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는 '관내 분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06 이 글은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인 '지민'의 시각에 맞추어 서술함으로써 '지민'의 내면 심리에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7 (나)의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에서 '은하'가 '지민'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엄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가)의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욱을 만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가)의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의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은 마인드 속 엄마의 공간을 보고 난 후,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08 '지민'은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야 할 말(㉠)'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 지금 할 수 있는 말로, 마지막 장면의 "엄마를 이해해요."로 볼 수 있다.

09 (라)의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에서 '엄마만의 방(㉠)'은 엄마의 마인드 속 세계에만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0 '지민'은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 과정에서 엄마의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마인드 분실을 중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통해 과학 기술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 ① 고인의 의식을 저장하는 과학적 소재인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과학 기술을 소재로 하고 있다.

② 도서관에 등록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면서 일어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 도서관은 고인들의 데이터를 집약해 놓은 공간으로, 과학 기술이 실현된 곳이다. 작가는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도서관을 지금과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⑤ '지민'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지만, 과학 기술을 매개로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결국 엄마와 화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은 삶과 죽음을 넘어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본책 188~191쪽

(03) 극 갈래

① 소유 ② 관객 ③ 실험적 ④ 빌린 것 ⑤ 시간 ⑥ 물질적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7 ② 08 '여자'는 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소유의 본질에 관한 '남자'의 말에 공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청혼을 수락하였다.

01 이 글은 극 갈래 중 희곡으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주며(ㄴ),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다(ㄷ).

| 오답풀이 | ㄱ. 신(scene)을 구성 단위로 하는 것은 시나리오이다. 희곡은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한다.

ㄷ. 다양한 편집 기법으로 장면의 전환이 자유로운 것은 시나리오이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자유롭지 않다.

02 '여자'는 사기꾼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로 보아 '여자'가 결혼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덤'은 '여자'의 어릴 적 별명으로,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준 것이다. '여자'는 자신이 '덤'과 같은 존재라는 점이 오히려 좋고 홀가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덤'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만보다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여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04 '남자'는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만,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혼잣말로 고백을 한다.

05 연극 중간에 '남자'가 관객에게 빌린 넥타이를 되돌려주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되돌려준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으므로,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객의 물건을 되돌려주는 장면이 있어야 한다.

06 '남자'를 걷어찰 듯이 다가오는 '하인'의 행동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극의 긴장감을 높여 관객이 극 중 상황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07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에서 '여자'는 '남자'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남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듯이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어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선택을 망설이는 듯한 말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 '여자'를 속여 온 사실을 수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이기 직전에 놓인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간절함을 담아 호소하듯이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이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며 '여자'가 '하인'에게 하는 말이다. 따라서 '하인'의 행동을 나무라듯이 날카롭고 단호한 말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여자'는 어머니한테 한 맹세에 따라 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설득되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평가 기준	확인 ☒
청혼을 수락한 이유를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썼다.	☐
'여자'의 가치관 변화를 정확하게 썼다.	☐

(04) 교술 갈래

① 의태어 ② 대비 ③ 형식 ④ 자연 ⑤ 한자어 ⑥ 봉선화

01 ② 02 봉선화 03 ③ 04 ㉠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한다. 노인은 자연의 물인 ㉢만이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05 ⑤

01 이 글은 교술 갈래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을 말한다.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는 것은 시나리오나 희곡과 같은 극 갈래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장미’의 모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노인의 보살핌 없이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가)에는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해 조석으로 물과 거름을 주며 화초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노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애지중지(愛之重之)’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을 나타낸 말로, 화초를 대하는 노인의 모습을 표현한 말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자포자기(自暴自棄)’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노인이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였다고 했으므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④ ‘노발대발(怒發大發)’은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을 뜻하는 한자성어이고, ‘격세지감(隔世之感)’은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노인은 공을 들여도 병들어 가는 화단 앞에서 섭섭함을 드러낼 뿐 노발대발하거나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노인의 화단이 병이 든 연유는 비가 오지 않은 것에 있으므로 노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노인은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반하장의 상황과 맞지 않다.

04 이 글에서 ‘수돗물(㉠)’은 병들어 가는 화초들을 살리기 위해 노인이 준 물이며, ‘빗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이다. 따라서 ‘빗물’은 자연적인 것을,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비를 맞고 소생하는 화초들을 보면서 “그저 하늘의 물이라야…….”라고 말하며 자연의 물만이 만물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의미를 ‘자연적인 것’, ㉡의 의미를 ‘인위적인 것’이라고 정확하게 썼다.	☐
자연의 물이 지닌 힘에 대한 노인의 깨달음을 포함하여 썼다.	☐

05 이 글은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비판하며,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2. 품격을 높이는 언어생활

본책 194~195쪽

(1) 음운의 변동

① 뜻 ② 비음 ③ 축약 ④ 반모음 ⑤ 반영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실래, 유음화 09 ⑤

01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이 중 교체, 축약, 첨가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지만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된다.

02 '실내'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래]로 발음한다. 따라서 음운 변동 과정은 'ㄹ + ㄴ → ㄹ + ㄹ'로, 음운 변동 결과는 'ㄴ → ㄹ'로 정리해야 한다.

○ 오답풀이 ○ ① '국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공물]로 발음한다.

② '굳는'은 비음화가 일어나 [굳는]으로 발음한다.

③ '관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괘리]로 발음한다.

⑤ '입는'은 비음화가 일어나 [임는]으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비음화와 유음화

비음화	음절 말 파열음 'ㄱ, ㄷ, ㅂ' 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ㄹ' 으로 각각 발음되는 현상
유음화	비음 'ㄴ' 이 앞이나 뒤에 유음 'ㄹ' 이 오면 그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03 '곧이어'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 [고디어]로 발음한다. 나머지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ㅅ,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연음 현상

연음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현상이다.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 횡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04 '둘 바'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 'ㅃ'으로 교체되어 [둘뻑]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① '역도'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역또]로 발음한다.

② '넙고'는 용언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넙꼬]로 발음한다.

③, ⑤ '열정'과 '발전'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오는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어 각각 [열쟁]과 [발쟁]으로 발음한다.

05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되어'는 [되어/되여], '피어'는 [피어/피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준하여 '이오, 아니오'도 [이요],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개어'는 [개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개어]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 자료

표준 발음법 제5장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06 '치러야'는 모음 탈락을 표기에 반영하여 '치려야'로 표기한다. '치려야'는 '치르- + -어야'의 결합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생길른지'는 유음화가 일어난 발음을 그대로 쓴 것이다.

② '생길른지'의 올바른 표기는 '생길는지'이다.

④ 모음 탈락은 비슷한 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난다.

⑤ 자음 'ㄹ'의 영향을 받는 것은 '생길는지[생길른지]'이며, '치러야'는 '치려야'로 고쳐 써야 한다.

07 <보기 2>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비음화이다. <보기 1>의 '생각만'은 음절 말 파열음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강만]으로 발음한다.

○ 오답풀이 ○ ① '행복해'는 예사소리인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행보깨]로 발음한다.

② '들여다보곤'은 연음 현상이 일어나 [드려다보곤]으로 발음한다.

③ '할 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ㅈ'이 'ㅉ'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할썬]로 발음한다.

④ '순간'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08 '신라'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실라]로 발음해야 한다.

09 '산뜻하다'는 '기분이나 느낌이 깨끗하고 시원하다.'를 의미하며 '산뜻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사전에 등록된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할 말에서 된소리를 쓴다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02) 공동체와 의사소통

① 양 ② 공손성 ③ 체면 ④ 비판 ⑤ 가치

01 ① 02 (1) '화성'은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2)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3 ⑤ 04 ② 05 ① 06 ① 07 ④

01 축구를 잘하냐는 '화성'의 질문에 '동희'는 질문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까지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희'가 지켜야 할 대화의 원리는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는 양의 격률이다.

▶ 오답풀이 | ② 축구 실력과 관련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⑤ 대화의 맥락상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02 축구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묻는 '동희'의 질문에 '화성'은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이를 통해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1)에 '~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의 형식으로 썼다.	☐
(2)에 '화성'이 ㉠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1)과 (2)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 참고 자료

대화 함축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하위 규범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를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발화 속에 숨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한다. 보통 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협력의 원리를 어긴다.

03 '선배'는 "애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라고 하였다. '선배'는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을 뿐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② '후배'는 다른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했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선배'는 당혹스러움과 서운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④ '후배'는 '선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후배'는 '선배'에게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배'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04 남의 말을 들을 때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함부로 들어 넘기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듣는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 참고 자료

담화 관습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형성된 듣기·말하기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말한다.

05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한글 맞춤법 등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대화 자체를 지양하는 것은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06 평범한 경험이라도 일상적인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참신한 표현으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 참고 자료

개성이 드러나는 글 쓰기

자신만의 관점을 덧붙여 일상적인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인식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비유, 역설 등의 참신한 표현으로 진술하고 생생하게 담아낸다면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07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산다는 것은 나하고 남하고 끊임 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산다는 것은 나하고 남하고 끊임 없이 소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소통으로 읽는 삶

본책 198~199쪽

(1) 문학으로 소통하기

- ① 고백적 ② 내면 ③ 시선 ④ 현실적 ⑤ 본질적 ⑥ 하늘
⑦ 의지

01 ① 02 ⑤ 03 ② 04 현실 극복 의지 05 ④ 06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

01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시적 화자의 시선이 천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미래를 다짐하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02 (가)에서 '길'은 잃어버린 시적 화자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서 자아 탐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03 (가)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를 읽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04 (나)에서 윤동주의 시가 지닌 문학사적 가치를 당시 시대상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는 시적 화자가 살아가는 이유와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일제 강점기와 윤동주의 문학관

역사적 배경	윤동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1910~1945)로, 이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억압이 심각했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윤동주의 시는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에 드러난 정서와 주제는 일제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저항 문학	저항 문학은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학 작품을 의미하며, 윤동주의 시는 이러한 저항 문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저항 문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윤동주와 같은 시인들은 시를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자유를 갈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05 시적 화자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③은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없이, 서술어 '잃어버렸습니다.'로 한 행을 구성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② ⑥는 '돌'이라는 시어를 연달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⑦의 '긴 그림자'는 쇠문이 굳게 닫힌 '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시적 화자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인 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⑧은 시구의 중간에 쉼표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6 문학 소통이란,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작가 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문학 소통에 참여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학 소통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문학 소통의 효과를 각각 한 문장씩 썼다.	☐
접속 부사어를 활용하여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

본책 200~201쪽

(2) 독서, 삶의 길 찾기

- ① 실질적 ② 목적 ③ 매체 ④ 사회적

01 ④ 02 ⑤ 03 ㄱ - ㄹ - ㄷ - ㄴ 04 ① 05 ④ 06 ③
07 ④

01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쉽고 빠르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진로 및 관심 분야를 알아볼 때는 자신의 적성, 흥미를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질문으로 볼 수 없다.

03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하기 (ㄱ) →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글 또는 자료를 찾

아, 읽기 계획 세우기(ㄷ) → 읽기 계획에 따라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ㄷ) → 읽기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읽기 결과 공유하기(ㄴ)

04 제시된 활동들은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 통합적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매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보다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또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05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읽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살펴본다(ㄱ). 그리고 읽기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는지 돌아보면서(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였는지 점검한다(ㄹ).

| 오답풀이 | ㄷ.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해야 한다.

ㄷ. 읽기 분량이 아니라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06 (가)의 세 학생은 심리학이라는 공통의 관심 분야를 두고 자신이 읽을 글이나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민', '선주', '정후'는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읽을거리를 선정하고 있다.

07 (나)에서 '선주'는 읽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른 주제로 관심을 확장하여 새로운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한다.

➤ 참고 자료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_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가이드

진로 탐색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흥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자기 이해	성격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 진로를 탐색할 때는 각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근무 환경, 성장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함. • 학교의 진로 교육 자료, 직업 관련 웹 사이트, 직업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핵심 역량의 향상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새로운 핵심 역량이 미래의 직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 함.

4.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

본책 202~205쪽

(1) 비판적 읽기와 주제적 수용

① 질문 ② 생명 ③ 권리 ④ 연역

01 ⑤ **02**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② **09**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과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0** ① **11** ② **12** ①

01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동물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 예상 반론과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절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나)에서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 제시된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 닭',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코끼리'의 사례에서 동물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라)에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그 근거를 문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02 (나)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안다.'와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참일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이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과정을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다)에서 글쓴이는 피부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 차별주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차별하는 종 차별주의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04 (바)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05 (라)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약자를 향한 범죄가 줄어들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가 적절하다.

06 글쓴이는 인간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 ① 글쓴이는 흑인 노예 제도, 흑백 분리 정책 등 외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생물학적 특성이 차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난아이라도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예상 반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나)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 (바)에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논증 방법은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해 준다.

⑤ 동물이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추가하면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07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평가할 때는 글쓴이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 주장의 내용이 명확한지를 따져야 한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전략을 구상할 때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가)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다른 사회적 차별 문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거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서 글쓴이는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과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활용하여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근거 자료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썼다.	☐
근거 자료의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0 (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 뉴스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기대 효과(3번 카드),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국가(4번 카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5번 카드)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여론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뉴스이다. 따라서 카드 뉴스를 읽을 때는 다양한 시각 자료와 글을 종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

- 매체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 매체 자료가 제작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매체 자료의 내용은 타당한가?
- 주장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12 반려동물 보유세는 (가)의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맥락이 통하는 내용이다. (가)에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책 206~209쪽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① 객관적 ② 인공 강우 ③ 실행 ④ 이익

01 ⑤ 02 ④ 03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04 ③ 05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 또는 이익 /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06 ④ 07 ② 08 ④ 09 ②

01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형식의 담화이다.

02 이 토론에서 양측은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각자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ㄴ). 이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ㄷ).

| 오답풀이 | ㄱ. 가치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치 논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좋

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를 말한다.

ㄷ. '게임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사실 논제는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관계를 다루는 논제를 말한다.

03 (다)에서 반대 측은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 측과 입장이 같으나,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04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등과 같이 토론자를 지명하며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5 (가)와 (나)에서 양측 토론자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라는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나 이익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찬성 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실용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와 (나)에 나타난 쟁점을 정확하게 썼다.	☐
필수 쟁점의 종류를 정확하게 밝혀 썼다.	☐
필수 쟁점을 의문문으로 썼다.	☐

06 반대 신문은 상대측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답변자는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경청하되,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게 답변해야 한다.

07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b),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과정이다(d).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a).

08 인공 강우의 효과가 확실치 않고 국가 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찬성 측은 인공 강우가 가뭄 해결과 같은 국제적인 이익으로 작용하여 상호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09 @에서 찬성 측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통해 가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5. 생각을 담은 말과 글

본책 210~211쪽

(1)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

① 전문어 ② 청자 ③ 일치 ④ 당함 ⑤ 내용

01 ④ 02 사고 도구어 03 ⑤ 04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05 ⑤ 06 ③ 07 ⑤ 08 현지는 어머니께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09 ②

01 '찬란하다'와 '형언하다'는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로, 의미가 분명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ㄱ)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다(ㄴ). '학교, 친구, 언어'는 한자어이다(ㄷ).

| 오답풀이 | ㄹ, ㅁ.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 참고 자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정서,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음.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고유어에 비해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음.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외국 문화와 함께 들어온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많음. 우리말을 보완하여 풍부하게 해 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삼가야 함.

02 사고 도구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잘 드러내는 어휘로, 이를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적절히 사용하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 전제, 추론, 분석' 등이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03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서술의 객체는 문장에서 부사어나 목적어의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은 주체 높임법이다.

➤ 참고 자료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는 대화를 하는 상대의 나이, 사회적 관계, 서로의 친밀감, 가족 간의 위계, 대화 상황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04 '할머니에게 과일을 주고 올게.'에서 서술의 객체가 '할머니'임을 알 수 있다.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임을 밝혔다.	☐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 05 ㉡는 동사 '읽다'에 보조 용언 '-어 버리다'를 결합하여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

참고 자료

본용언과 보조 용언

- 본용언: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에서 '먹어'가 해당한다.
- 보조 용언: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먹어 보다.'에서 '보다'가 해당한다.

- 06 '그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발화시보다 화자가 '그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건 시가 앞서는 경우이다. '봤어'는 선어말 어미인 '-았-'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다.

▶ 오답풀이 | ① 과거 시제로, '만난'은 '만나다'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니'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과거 시제로, '차단'은 '차다'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미래 시제로, '떠날'은 '떠나다'에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 '-르'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미래 시제로, '도착하겠구나'는 '도착하다'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07 <보기>의 피동문에서는 '그릇이 깨진 상황'에 초점을 둬므로 써 '그릇을 깬 주체'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동문에서는 책임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피동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피동 표현의 쓰임

피동 표현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용에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08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지시 표현 등을 문장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 인용 표현에 쓰인 큰따옴표를 없애고, '제가'를 '자기가'로, '할게요'를 '하겠다'로,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 09 제시된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이 실현되었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것으로, 직접 말을 전해 듣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본책 212~213쪽

0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① 공론화 ② 쓰기 맥락 ③ 논리

01 ③ 02 ⑤ 03 ④ 04 ㉠은 시간적 순서의 원리, ㉡은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쓰였다.

- 01 (가)는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의 누리 소통망의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는 반면, (나)는 누리 소통망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소셜 다이닝'과 같은 사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먼저 사안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깨달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수필과 같은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 03 본론 3의 '현대 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며, (나)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은 '누리 소통망이 등장하여 나타난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시간적 순서의 원리를 사용하여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부터,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세기, 누리 소통망이 등장한 21세기의 모습을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은 '인간관계를 강화해 주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논리적 순서의 원리(귀납)를 사용하여 소셜 다이닝 문화와 산불 이재민 돕기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에 각각 적절한 내용 전개의 원리를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게 썼다.	☐







